



2018
학년도 서울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 안내



SEOUL
NATIONAL
UNIVERSITY

| 서울대학교 입학본부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150동 4층 입학본부 (우)08826

전화 _ 02.880.5022 / 02.880.6974~6 팩스 _ 02.873.5021

<http://admission.snu.ac.kr> webzine 아로리 _ <http://snuarori.snu.ac.kr>

서울대학교 입학본부

2018학년도

서울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 안내

[수시모집]

정원 내 전형: 지역균형선발전형, 일반전형

정원 외 전형: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I

[정시모집]

정원 내 전형: 일반전형

정원 외 전형: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II

차례

I.	미래의 서울대학생에게	· 서울대학교는 이런 학생을 기다립니다	02
		· 서울대학교 입학전형을 안내해드립니다	03
II.	학생부종합전형 안내	· 학생부종합전형이란 무엇인가요	04
		· 학생부종합전형이 왜 필요한가요	04
		· 서울대학교는 그동안 학생부종합전형을 어떻게 운영했나요	05
		· 서류평가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06
		- 서류평가란 무엇인가요	
		- 어떻게 평가하나요	
		- 다수에 의한 단계 평가가 무엇인가요	
		- 각 요소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 면접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11
III.	행복한 학생, 건강한 학교	· 학생들은 이렇게 준비하세요	14
		- 도전하는 학생	
		- 넓고 깊게 공부하고자 노력하는 학생	
		- 훌륭한 인성을 갖추고자 노력하는 학생	
		· 학교는 이렇게 도와주세요	20
		· 입학서류 작성은 이렇게 하세요	22
		- 자기소개서, 추천서, 학교생활기록부, 학교소개자료	
IV.	학생부종합전형의 오해와 진실		34
V.	면접 우수자가 들려주는 학교생활 이야기	· 가장 기억에 남아요	42
		· 공부는 이렇게 했어요	44
		· 면접은 나의 목소리	46
VI.	선배가 말하는 '대학입학과 나'	· 대학 - 우리가 무엇을 모르는지 배우는 곳	48
		· 서울대를 머릿속에서 지워라	50
		· 입시가 아닌, 나 자신에게 집중하라	52
		· 한라산에서의 다짐이 서울대로 이끌다	54
		· 항상 미래를 생각하세요	56
VII.	미래의 인재를 기다리며		58

서울대학교는 이런 학생을 기다립니다

‘세계사적 소명을 실천하는 창의적 지식 공동체’

이는 서울대학교가 추구하는 현재와 미래의 모습입니다.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은 미래를 개척하고 인류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서울대학교가 지향하는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인재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학업능력이 우수한 학생
- 학교생활에서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태도를 보인 학생
-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자질을 지닌 학생
- 다양한 교육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과 경험을 지닌 학생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심과 공동체 의식을 가진 학생

서울대학교는 우수한 학업능력과 적극적인 학업태도를 지닌 학생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글로벌 리더’나 ‘진취성’이란 단어가 다소 거창하여 구체적인 개념이 쉽게 떠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에게는 멀리 있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서울대학교는 이러한 모습으로 이미 완성된 인재를 선발하려는 것이 아니라 장차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가능성을 지닌 학생들을 선발하려는 것입니다. 그 가능성은 단순히 수능 몇 점 또는 내신 몇 점의 점수만으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서울대학교에 지원한 학생들을 정량화된 수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로 파악합니다.

여러분이 서울대학교가 원하는 인재로 성장하고 싶다면 먼저 각자의 자리에서 현재 자신의 모습을 평가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에 우리 사회를 위해 어떤 기여를 할지 꿈을 가져 보십시오. 학생부종합전형을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과거를 성찰하고 미래에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현재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이 서울대학교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입학 전형을 안내해드립니다

서울대학교는 ‘세계적인 리더’로 성장할 창의적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다양한 전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모든 전형은 우수 인재 선발을 목표로 한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각 전형마다 고유한 특색이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대학교가 2018학년도에 실시하는 전형들입니다.

수시모집	정시모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균형선발전형 · 일반전형 ·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전형 ·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II

위 전형 가운데 정시모집 일반전형을 제외한 모든 전형, 즉 수시모집 지역균형선발전형, 일반전형,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I, 정시모집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II 가 학생부종합전형에 속합니다.

각 전형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전형	전형 소개	전형 요소*
수시	지역균형선발전형	다양한 지역적, 사회·경제적 배경 하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잠재력 있는 인재들을 선발하기 위한 전형입니다.	서류평가, 면접
	일반전형	학업능력이 우수하고, 모집단위와 관련된 분야에 재능이나 열정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전형입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발현될 수 있는 학생의 열정과 재능을 다각도로 평가하여 모집단위 특성에 부합하는 학생을 선발합니다.	서류평가, 면접 및 구술고사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I (정원 외 전형)	다른 학생들에 비해 지역적, 경제적, 문화적,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많지만 적극적인 자세와 열정, 도전 정신을 통해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높은 성취를 이룬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전형으로 저소득 가구 학생과 농·어촌 지역 학생, 농업생명과학대학에 지원하는 농생명계열 고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전형입니다.	서류평가, 면접
정시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II (정원 외 전형)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수행하는 데 대학의 지원과 배려가 필요한 특수교육대상 학생들과 북한이탈주민을 선발하기 위한 전형입니다.	서류평가, 면접

* 모집단위에 따라 실기평가 또는 적성·인성면접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이란 무엇인가요

학생들의 가능성과 자질은 사람들의 얼굴만큼이나 다양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정형화된 공식과 기계적인 수치는 학생의 다양한 능력을 모두 보여주지 못합니다. 학생이 속한 환경과 학업 동기, 학업에 대한 의지, 열정, 노력과 같은 요소들도 반영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한 종합적인 평가 제도가 바로 학생부종합전형(구 입학사정관제)입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수치로 계산된 성적만을 반영하지 않고,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학업능력뿐만 아니라 학업에 대한 노력, 의지, 열정, 적극성, 도전 정신,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서울대학교는 이미 2000년부터 현재와 같은 전형 방식을 준비하여 2002학년도부터 점진적으로 학생의 학업적 역량과 발전 가능성을 평가해왔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전문적인 평가체계와 평가인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온 결과,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 비율을 꾸준히 높여 최근 3년간은 모집 인원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이 왜 필요한가요

우리의 대입 환경은 고등학교 선생님과 학생, 학부모 모두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입하고도 대학과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인재 육성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학생부종합전형의 종합평가 방식을 통해 고등학교 교육이 수능과 내신 위주의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교육에서 탈피하여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발전 가능성을 계발하여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는 바람직한 교육시스템으로 변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점수 위주의 선발 방식에서는 매우 미미한 점수 차에 의해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됩니다. 이 같은 방식은 간단하고 편리한 선발 방법이지만 창의적 인재를 필요로 하는 대학과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적절한 방식인지는 의문입니다. 서울대학교는 학생들의 학업능력과 발전 가능성을 면밀히 평가하기 위해 수치의 단순한 합산을 넘어서는 평가방법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에 기반한 종합적이고 다면적인 평가'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교과 성적, 교내외 활동의 결과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기와 과정까지 다면적이고 심층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종합적인 평가 방식의 가장 큰 의의는 각각의 점수를 단순히 합산하는 방식으로는 평가할 수 없는 학생들의 학업 능력과 잠재력을 더욱 면밀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과 노력을 중심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 교육 안에서 성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그동안 학생부종합전형을 어떻게 운영했나요

서울대학교는 2000년부터 우리 교육이 문제풀이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야 함을 인식하고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해 연구하고 입학전형에 적용해 왔습니다. 2002년에 수시모집에서 교과외영역에 대한 서류평가를 하기 시작하여 2005년부터는 학교생활기록부, 추천서, 자기소개서를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서류평가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종합평가 중심의 입학사정관제를 2007학년도 정원 외 전형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하여 점차 선발인원을 확대하였고, 2012학년도부터는 수시모집 전체에 적용하여 현재 학생부종합전형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시기	내용
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학본부 설치 - 종합적, 다면적 평가 구현을 위한 체계적인 입학전형 연구
2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류평가도입을 위한 자료 조사 및 시스템 개발 착수 - 미국 주요 대학방문 및 자문 - UC-버클리대 입학처장 초청 컨설팅
2002~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외영역에 대한 서류평가 도입 - 학교생활기록부, 추천서, 자기소개서를 전형자료로 활용 서류 종합평가 적용 방안 연구
2005~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시모집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추천서, 자기소개서 등을 활용한 종합평가 도입 평가 자료의 DB화 및 종합평가 시스템 구축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류평가 본격 도입을 위한 미국 주요 대학 평가 시스템 연구 입학사정관제 시범 실시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학사정관제를 정원 외 특별전형 전체로 확대 종합평가방식 정착을 위한 코넬대 입학처장 초청 컨설팅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학사정관제 선발인원 확대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학사정관제를 정원 내 지역균형선발전형으로 확대 실시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유전공학부에 입학사정관제 종합평가 실시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시모집 전체를 학생부종합평가방식의 입학사정관제로 선발하기 시작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시모집 전체를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선발하기 시작

서류평가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 서류평가란 무엇인가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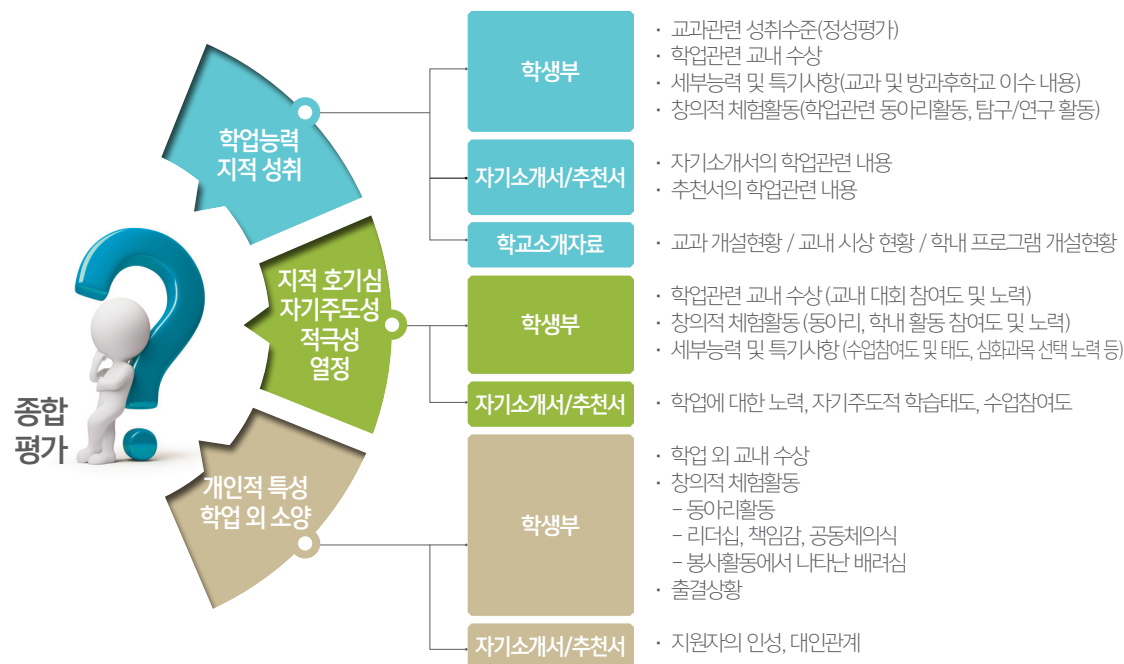
서류평가는 학생부종합전형의 첫 번째 단계이며 여러분이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추천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수시모집 지역균형선발전형에서는 서류평가와 면접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격자를 선발하며, 수시모집 일반전형과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I에서는 서류평가 결과가 우수한 학생들을 1차 선발하여 면접 또는 면접 및 구술고사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정합니다.

학생이 제출한 서류는 복수의 입학사정관이 여러 단계의 평가, 협의, 검토를 거쳐 평가합니다. 이를 위해 서울대학교에는 현재 26명의 전임입학사정관과 각 대학의 교수님들로 구성된 111여 명의 위촉입학사정관들이 선발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각 평가 단계별로 다수의 평가자가 참여하므로 개인의 주관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 어떻게 평가하나요 |

입학사정관은 서류평가 과정에서 학생의 학업능력과 자기주도적 학업태도, 전공분야에 대한 관심, 지적 호기심, 창의적 인재로 발전할 가능성 등을 평가합니다.



이때, 한 종류의 서류나 항목만으로 학생을 평가하지 않으며 제출된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추천서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적극적인 학업태도를 갖춘 학생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교과수업 참여도와 교과 수업 선택 내역, 교내 대회 참여도, 학업 관련 학내 활동 참여 노력, 자기소개서나 추천서에 드러난 지적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 등 제출서류에서 드러나는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추천서, 자기소개서의 서류별 반영 비율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학교생활기록부에서도 특정 부분만을 평가에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 성취도, 교내 수상,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독서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창의적 체험활동 등 기재된 모든 내용을 평가 대상으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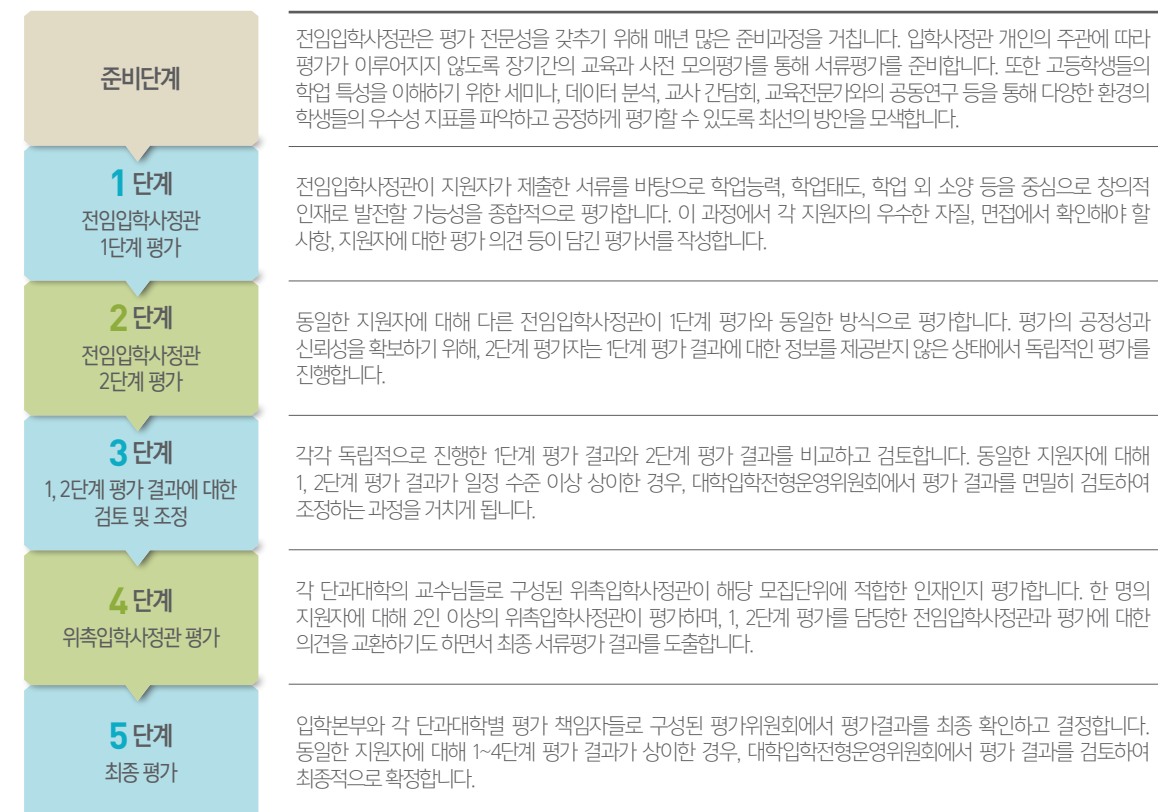
| 다수에 의한 다단계 평가가 무엇인가요 |

학생부종합전형의 종합적 평가방식은 많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가자의 주관에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한 명의 지원자를 여러 입학사정관들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평가자에 의한 다단계 평가’ 시스템 운영

서울대학교는 충분한 준비과정을 통해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다수의 평가자가 여러 단계를 거쳐서 평가하고 협의하는 방식으로 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평가자가 전형 준비에서부터 최종 합격자 선발까지 여러 단계에 걸쳐 평가, 협의,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각 단계별로 다수의 평가자가 참여하기 때문에 한 개인의 주관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여지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5단계의 평가 과정을 거칩니다.

평가에는 전임입학사정관과 각 단과대학 교수님들로 구성된 위촉입학사정관이 참여합니다.



| 각 요소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

● 학업능력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지원자의 학업능력, 학업태도, 학업 외 소양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지만, 학생 선발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부분은 우수한 학업능력입니다.

학생의 학업능력은 반드시 교과 성적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교과 성적이 학생들의 학업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의 학업능력은 교과 공부뿐 아니라 교내 탐구활동, 교내 경시대회, 독서활동, 방과후 수업, 동아리활동 등을 통해서도 향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학사정관은 학교소개자료를 통해 학교 교육과정을 포함한 학교 교육 내용, 시상 내용, 재학생 수 등 고등 학교의 교육 환경을 먼저 파악합니다. 그 후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학습발달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학업 관련 활동), 학업 관련 탐구 및 연구 활동, 독서활동 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을 통해서 학생의 학업능력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습니다.

[교과 성취도]

교과 성적 지표는 학생의 학업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많은 자료 중 하나입니다.

교과 성취도를 파악할 때에는 교과 성적을 공식으로 수치화하여 기계적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상이한 교육 환경과 교육과정에서 얻은 성취를 단순히 수치상으로 비교할 경우, 지원자의 학업능력 수준을 판단하기 위한 정확한 정보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량평가를 하지 않으므로 학년별/과목별 반영 비율은 존재하지 않으며, 전 교과목의 3년간의 성취도를 정성적으로 평가합니다.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수강자가 400명인 과목에서 1등급을 받은 성적과 수강자가 14명인 과목에서 3등급을 받은 성적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적절한 평가방식이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등학교의 교과 성적 분포, 수강자 수,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 학년별 성적 변화 등의 다양한 정보를 통해 수치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정보를 정성적으로 해석하여 더욱 정확하게 학업능력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학년	학기	과목	이수단위	등급	인원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
1	1	OOO	3	1	400	98	71.2	15.4
2	2	OOO	2	3	14	94	89.2	4.6
3	1	OOO	2	A	-	-	-	-

특히 교과 성적은 학생이 이수한 과목의 선택 상황을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소수 학생이 선택한 과목이나 난이도가 높은 과목을 이수하여 수치상 결과가 다소 나쁠 수 있지만 학생의 도전 정신과 호기심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 도전하지 않은 학생에 비하여 더 좋은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 선택을 많이 제시한 교육과정, 소수 학생이 이수한 과목 수강이 서류평가에서 결코 불리하지 않습니다.

[교내 수상]

교내 경시대회에서 지속적으로 우수한 성취를 거둔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한 우수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내 경시대회는 아래 표와 같이 학교마다 상이하게 시상이 이루어지므로 단순히 수상 여부나 양이 아니라 참가대상, 수상 인원 등을 파악하고 교육 환경 안에서 수상의 의미를 판단합니다. 또한 수상을 하지 못하였더라도 교내 경시대회에 참여한 노력과 학습한 내용이 서류에 드러날 경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학교	수상명	참가 대상	수상 인원
A	우수상	2학년 자연계열	대상(3명), 최우수상(5명), 우수상(7명), 장려상(10명)
B	우수상	전 학년 대상	최우수상(1명), 우수상(2명), 장려상(4명)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학교생활기록부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학생의 교과별 학습활동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재된 교재나 수업내용(토론, 발표 등), 그 안에서 보인 학생의 노력, 과제 수행 내용 등을 통해 학생이 교과수업에서 학습한 내용과 수준을 파악하며, 이 부분에서 단순히 교과 성적 수치로 볼 수 없는 학생의 우수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과학 교과 이론수업에서는 비슷한 수준이라고 여겨지던 학생이 실험 수업에서 실험 설계 능력, 문제해결능력 등의 우수성이 드러나는 경우, 수학 교과 중에서 유독 통계 부분에 강점을 보이는 경우 등 수치화된 성적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학생의 우수성을 평가합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중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등에서 학생의 학업 관련 우수성이 드러난다면 평가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독서활동, 탐구/연구 활동 등 학내 활동을 통해 드러나는 우수성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동아리에서 '농구반'보다 '심화수학반'이 의미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중 학업 외적인 부분에서 충실히 활동했다면 학생의 개인적 특성과 학업 외 소양 부분에서 그 우수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탐구/연구 활동이 가능한 학교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도 많습니다. 탐구/연구 활동 경험의 유무로 학생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연구 활동이 어려운 환경이라면, 주어진 여건 내에서 자신의 학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 부분을 평가합니다.

[자기소개서와 추천서]

학교생활기록부에 교과 성적 지표와 교내 경시대회 수상내역, 동아리활동 등이 결과 위주로 기술되어 있다면, 자기소개서와 추천서는 '결과'에서 보여주지 못하는 '과정'에서의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입니다. 예를 들어 천문 관련 동아리에서 활동한 학생이 학교생활기록부에는 동아리활동 시간과 활동 내용 등 결과적인 부분이 기술되어 있다면, 자기소개서에서는 천문동아리에 참여하게 된 동기나 동아리 참여 전과 후의 자신의 학업능력 관련 변화된 부분을 기술할 수 있고, 입학사정관은 이 부분에서 학생의 호기심과 학업적 역량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 학업태도

서울대학교는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경험에서 나타나는 지적 호기심, 학업에 대한 열정, 적극성 및 진취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이 같은 특성은 교과학습뿐 아니라 관심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독서활동, 글쓰기, 탐구/연구 활동, 실험 수업, 교내 대회 참여 등 다양한 학습 경험에서 드러납니다.

입학사정관은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학습발달상황, 학업 관련 수상경력,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독서활동 상황,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 그리고 자기소개서와 추천서 등을 통해서 학생이 어떤 학업태도를 보여왔는지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교내 경시대회에서 지원자가 학업 기회를 찾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도전했던 내용이 보인다면 지원자의 학업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학업 외 소양

서울대학교는 학교생활에 나타난 지원자의 성품뿐 아니라 리더십, 공동체 의식, 책임감,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기여 가능성 등을 평가합니다.

입학사정관은 학교생활기록부의 학업 이외의 교내 수상,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봉사활동 내용, 행동특성 및 종합 의견, 그리고 제출된 자기소개서와 추천서를 통해 학생의 대인관계 및 인성 등 개인적 특성을 판단합니다.

다만 학생의 개인적 특성을 경험의 유무나 활동의 양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임원 활동 경력이 많은 학생이 리더십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임원 활동의 횟수보다 맡은 역할과 활동 내용을 질적으로 판단하며, 봉사활동 역시 봉사활동의 양이 아닌 활동 내용과 학생에게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평가합니다.

면접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시행하는 면접은 크게 제출서류를 기반으로 진행되는 면접과 제시문을 활용하여 출제된 문항을 바탕으로 하는 면접의 두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 서류 기반 면접 |

수시모집 지역균형선발전형과 정시모집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II 지원자 모두와 수시모집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I의 면접 대상자는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한 면접에 응시하게 됩니다. 서류 기반 면접은 지원자가 제출한 학교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 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복수의 면접위원이 지원자의 서류 내용 중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고 지원자가 이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면접을 통해서 제출서류를 토대로 서류내용과 기본적인 학업소양 등을 확인합니다.

● 어떻게 준비하면 되나요?

서류 기반 면접에서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생활 동안 경험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면접이 진행됩니다.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학생의 경험을 확인하고 기본적인 학업소양을 평가하기 위한 면접이므로 면접을 위한 별도의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답변하는 기술과 태도를 측정하는 면접이 아니므로 말투나 태도를 단기간 연습하기보다는 평소에 학교생활을 충실히 하여 깊고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나 자기소개서에 담겨있는 본인의 경험을 되돌아보고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되짚어 생각해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면접 대비 방법일 것입니다. 그리고 10분 내외로 면접위원 앞에서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해야 하므로 평소 학교에서 토론이나 발표 시간에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게 이야기하는 경험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는 부모님이나 선생님 앞에서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해 보는 연습이 면접 당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제시문 활용 면접 |

수시모집 일반전형 1단계 합격자는 면접 및 구술고사에 응시하게 됩니다. 일반전형의 면접 및 구술고사에서는 제시문을 활용한 면접문항이 사용됩니다. 지원자들에게는 제시문과 그에 따른 문항이 제공되고 학생들은 모집단위별 30분 / 45분 동안 답변 준비를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수시모집 일반전형 면접 및 구술고사의 문항은 고등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범위 안에서 출제됩니다. 2018학년도 입학전형 안내를 통해 모집단위(단과대학, 학과, 학부 등)별로 평가되는 분야나 과목을 제시하였습니다. 각 모집단위별로 안내된 분야의 제시문과 문항을 활용하여 지원자의 전공 적성과 학업능력을 평가합니다.

2018학년도의 면접 및 구술고사의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예시 1

인문대학	· 인문학, 사회과학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능력 평가 · 영어 또는 한자 활용 가능
------	---

인문대학의 경우 일반적인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인문학 분야, 사회과학 분야 제시문이 각각 제공됩니다. 출제되는 제시문에 따라서 고등학교 수준의 영어 또는 한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원자들은 30분 내외의 준비 시간에 주어진 두 분야의 제시문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여 각 문항에 대한 답변을 구성하게 됩니다.

면접시간은 15분 내외로, 문항에 대한 답변과 이어지는 관련 질문들에 대한 답변으로 진행됩니다. 해당 모집단위 교수님들 중에서 위촉된 면접위원들이 확인하고 싶은 것은 정답 여부보다는 답변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보이는 사고력, 논리력 등이며 전반적인 학업소양에 중점을 두어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 예시 2

농업생명과학대학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 물리, 화학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능력 평가
-------------------------	--------------------------------------

같은 단과대학 내에서도 세부 학과/학부에 따라 출제되는 내용과 분야가 다르므로 모집안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농업생명과학대학의 경우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는 물리 관련 제시문과 화학 관련 제시문이 각각 주어집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되며 고등학교 과학교과 중 과학 II 수준까지의 범위에서 출제됩니다. 45분 내외의 답변 준비시간에 두 분야의 제시문을 이해하고 답변을 준비한 뒤, 15분 동안 면접을 진행합니다. 면접위원들은 정답 여부보다는 지원자가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보이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이수한 교과 지식, 깊이, 사고력, 응용력 등을 평가하며 모집단위에서 필요한 소양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지원자들은 답변을 바로 못 하거나 정답에서 벗어났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도 당황하지 말고, 그동안 공부해왔던 지식을 바탕으로 침착하게 답변을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어떻게 준비하면 되나요?

서울대학교 면접 및 구술고사에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충분한 학습 경험을 통해 학업역량을 길러온 학생들의 학업소양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각 교과목 수업을 통해서 해당 과목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고 소화하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학습 과정 속에서 관련 도서도 찾아 읽고, 토론, 탐구, 과제 등 학습활동을 하면서 더욱 깊이 있는 학습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문학, 사회과학 관련 면접 및 구술고사는 다소 깊이 있는 제시문을 활용하기 때문에 평소에 독서활동을 성실히 하면 도움이 됩니다. 단기간의 면접 및 구술고사 준비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독서와 각 교과목의 깊이 있는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우수한 학업소양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연과학 분야 면접 및 구술고사의 경우도 각 과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 단순 문제풀이 위주의 학습에서 벗어나 사고력을 많이 요구하는 문제를 다뤄보거나 관련 이론 등에 대한 이해와 응용 연습을 해 보는 경험도 필요합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교과수업 내에서 깊은 생각이 필요한 문항을 만들어 친구들과 토론 학습을 해 보는 경험, 자연과학 이론이나 관심 주제에 대해 문제를 설정하고 고등학생 수준에서 과제를 해결해보고 발표하는 활동 등도 각 교과목에 대한 지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서울대학교 면접 및 구술고사에서도 본인의 학업소양을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학생들은 이렇게 준비하세요

미래 서울대학생 여러분! 그럼 서류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고등학교 생활은 대학교 입학만을 위한 과정이 아닙니다. 대학교 생활을 넘어 미래의 '나'를 위한 아주 중요한 준비 과정입니다.
“앞으로 고등학교 3년은 내 인생에서 없는 기간이야.” 라고 생각하기에는 그 시간이 무척 소중한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3년간의 시간. 내가 그리는 미래의 '나'를 위해서 어떤 노력, 어떤 활동, 어떤 공부로 채워나가야 할까요?

도전하는 학생

고등학교 생활 중 스스로 도전해 본 경험은 무엇인가요?
어떤 기회에 도전했었나요?
여러분이 생활해온 공간은 학교, 그리고 그 안의 교실입니다.
교실에서 여러분은 어떤 도전에 마주치게 될까요?

● 교과내용을 나만의 의미 있는 지식으로 만들자

교실에서의 수업, 교과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내 것으로 소화했나요?
내가 선생님이 되어 친구들을 가르칠 수 있을 만큼 내용을 이해했나요?
내용 이해보다 문제풀이 요령을 얻고자 하지는 않았나요?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충분히,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장 눈앞의 점수 올리기라는 쉬운 길보다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고 교실에서의 수업에 도전합니다.
단답형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수준, 오지선다형 시험에 대비하는 수준을 넘어서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내용을 나의 언어로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나만의 지식으로 만드는 과정을 즐겨 봅시다. 필요하다면 관련 책을 찾아보고 이전에 다뤘던 교과 내용도 참고해 보며 스스로 사고의 폭을 넓혀보는 연습으로 충실하게 지식을 쌓아 갑시다.

나에게 중요한 과목, 진로에 맞는 과목에 더 노력해야 할까요?
고등학교 때 진로계획을 세워 꿈을 향해 노력하는 과정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장차 다양한 경험과 계기로 여러분의 진로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최종 어떤 분야로 진로가 선택되더라도 고등학교에서의 모든 공부는 대학생활을 넘어 사회생활에 기초가 되는 교양의 밑거름이 됩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 지식이나 학문을 지나치게 편식하는 것은 지적 균형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인문학적 소양이 풍부한 과학자! 자연과학적 지식이 풍부한 인문사회학자! 철학과 과학을 아우르는 예술가!
여러분들의 멋진 미래입니다.

● 선택의 기회에서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선택을 하자

학교마다 교과목이 다양하게 개설되고 있습니다. 학생의 선택에 따라서 교과목이 개설되기도 하고 폐강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인문사회과정, 자연이공과정 등으로 구분되어 교과목이 제한적으로 개설되기도 합니다. 반면 학생들이 과목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와 폭이 넓은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선택의 기회가 있을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선택’, 때로는 이것이 하나의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화학이 좋은데... 화학 II 를 듣고 싶은데, 우리 학교에서 화학 II 희망자가 겨우 30명뿐이라고? 생물 II 는 150명이 듣는데?’

이럴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서울대학교 지원자라면 이런 상황에서 등급의 불리함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류평가의 이해 부분에서 언급했듯이 입학사정관은 교과 등급만으로 학생들의 학업능력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소수 인원이 수강하는 과목이라면 많은 인원이 이수하는 과목에 비하여 등급 수치가 우수하게 나오기 힘들다는 것을 서울대학교 입학사정관은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과목, 나의 현재 모습에 안주하지 않고 실력을 올릴 수 있는 과목에 도전하는 자세는 우수한 학업능력을 갖추게 되는 토대가 됩니다. 현재의 나보다 발전할 수 있는 배움의 기회라면 어려운 과목, 소수 인원 수강 과목에도 망설이지 말고 도전하여 노력하기 바랍니다.

● 선생님들의 진심과 노고가 깃들여진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여러분은 ‘세계사적 소명을 실천하는 창의적 지식 공동체’인 서울대학교의 주인공이 되실 분들입니다. 창의적 지식 공동체를 엮어가기 위한 서울대학생이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생각하고, 알아보고, 배운 지식을 활용해 보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수업내용 암기와 문제풀이 연습만으로는 여러분의 지식을 확장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학업활동에는 정해진 틀이 없습니다. 어떤 형태나 종류의 활동이라도 스스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학교 수업과 대학 진학을 위한 학업활동을 별도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규 수업 안에서 선생님과 함께 하는 다양한 형태의 활동이 모두 의미 있는 배움이며, 서울대학교는 이러한 경험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발표 수업, 토론 수업, 실험 수업 등 교실에서의 수업 방식이 다채로워졌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교실 수업에서 제시해 주시는 다양한 학습활동을 경험하면서 흥미로운 분야를 발견하고, 나의 학업 역량을 더 발전시키는 기회로 삼아 봅시다. 수업시간에 발표, 토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관련 자료를 찾고 충분히 연습하는 등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 실험·실습 수업에도 충실히 참여합니다. 교과 지식을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탐구 경험을 통해 자연과학 및 공학 분야의 적성과 흥미도 발견하게 되고, 지적 성장의 뿌듯함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교과 선생님들께서 과제를 많이 내 주신다고요? 각 교과 선생님들이 마치 한 학기에 한 과목만 배우고 있는 것처럼 수행평가 과제를 주신다고요? 수능시험공부도 벽찬데 주제탐구 보고서를 써야 한다고요?

예비서울대학생 여러분! 도전의 기회, 의미 있는 학교생활, 더욱 알차고 의미 있는 공부의 기회입니다. 놓치지 말아야겠지요? 여러분들이 교과수업에서 보여주는 노력들은 학교생활기록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록이 되고, 입학사정관은 이곳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 여러분의 수업 활동을 파악하고 역량을 키워온 내용을 이해하고 평가하게 됩니다.

넓고 깊게 공부하고자 노력하는 학생

수업을 열심히 듣고도 해결하지 못한 궁금증이 있었나요?

교과수업 내용 이외에 궁금한 점에 대해 찾아본 경험이 있나요?

교과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찾아서 깊이 있게 공부하는 노력이어야말로 서울대학교에서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필수 훈련 과정입니다.

서울대학교 입학사정관은 이런 자기주도적인 학습 노력을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 교과서,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더 넓고 깊게 공부하자

학문의 세계는 끝이 없다고들 합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교과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찾아보고 싶은 분야가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바로 스스로 찾아서 공부할 때입니다. 시간 낭비가 아니라 나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나의 실력과 역량을 한층 도약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더 알고 싶은 분야의 관련 서적을 찾아서 많이 읽고 깊게 이해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예비 학자로서의 면모가 갖춰지지 않을까요?

이외에도 학교에서는 탐구활동, 모둠 수행 과제, 토론회, 글쓰기 등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다양한 소양과 학업에 대한 열정, 적극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실력을 연마할 수 있는 다양한 교내 대회와 행사도 있습니다. 교내 대회 참여 종류나 횟수, 수상 등급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수상 기회를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소양을 정리하고 확인하는 기회로 삼아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우수한 학생들이 교내 다양한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땀과 열정을 나누는 활기가 넘치는 학교에서 여러분이 더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학교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얼마나 제공하느냐 여부는 서울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에서의 평가요소가 아닙니다. 학교마다 제공하는 활동 기회는 여건에 따라서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학업활동에 참여한 활동의 종류나 개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가 평가하는 것은 학생들 개개인이 각자에게 주어진 기회를 얼마만큼 스스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노력해왔는지, 어떤 동기와 의지를 가지고 활동하였으며 그로부터 개인적으로 얼마만큼의 성장을 이루었는지입니다.

● 예비 서울대학생이라면 독서는 기본입니다

독서는 모든 공부의 기초가 되며, 대학생들의 기본 소양입니다. 어디서 책을 찾을까요? 수업 안에서도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과와 관련된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철학, 공학 분야 도서를 수업 활동 중 선생님이 추천해 주실 수도 있고 토론회, 주제탐구 활동에도 관련 도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책을 읽어야 할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이미 학교생활에서 도서를 선정하는 계기를 많이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알고 싶은 분야의 전문서적을 찾아 읽을 수도 있고, 호기심으로 책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책을 읽다가 생긴 궁금증으로 또 다른 책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야의 책이든지 읽고 또 읽어가다 사이에 생각하는 힘, 글쓰기 능력, 전문지식, 의사소통 능력, 교양이 쌓여갈 것입니다. 타의에 의한 수박 겉핥기식 독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책들 가운데 그 책이 나에게 왜 의미가 있었는지, 읽고 나서 나에게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 생각하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는 독서를 통해 생각을 키워온 큰 사람을 기다립니다.

●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공부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학교에는 여러분을 안내하고 이끌어 줄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 친구들과 모둠활동을 하는데 방향을 잡기 어려워요.
- 우리끼리 해결해가는 방법이 좀 미숙한 듯하는데, 전문적인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이 분야와 관련한 책 좀 소개해 주세요. 더 알아보고 싶어요.
- 이 분야와 관련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토론회를 지켜봐 주세요. 저희 생각의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저희 논술 동아리 글쓰기 작품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 선생님, 저희 이런 프로젝트 하게 해 주세요.
- 과학 실험 동아리 만들었는데 지도 부탁드립니다.

학교는 무엇보다도 공부를 하도록 여러분 앞에 펼쳐진 마당입니다. 이곳에서 마음껏 공부합시다. 공부의 재미와 맛에 푹 빠져봅시다. 아직 그런 맛을 잘 모르겠다고요? 그렇다면 무엇보다 먼저 선생님과 친해져보세요. 선생님들께 계속해서 묻고 도움을 청하고 때로는 귀찮아하실 때까지 매달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선생님과 함께 열정을 다해 공부해 온 여러분을 서울대학교가 기다립니다.

훌륭한 인성을 갖추고자 노력하는 학생

인성이란 '사람의 성품'이라는 뜻 외에도 '각 개인이 가지는 사고와 태도 및 행동 특성'이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학교생활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나요? 여러분의 소양은 학업활동 이외의 다양한 경험 속에서도 다져 집니다. 세계 속의 리더로 성장해가는 예비 서울대학생 여러분이라면, 열정을 담은 학교생활 속에서 훌륭한 인성을 갖춰가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 학교생활을 더욱 즐겁게 할 수 있는 활동을 알아보고 참여하세요

고등학교 생활은 무엇보다도 학업활동이 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과정은 성인으로 성장해가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폭넓고, 사려 깊은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학업 외에도 고등학교 생활을 다채롭게 만들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있습니다.

운동, 예술, 사회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열정을 보이는 여러분이 서울대학교에 입학할 때에 그 열정도 함께 가지고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몇 가지 활동을 해야 할까요? 예술활동은 반드시 필요한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활동의 종류나 개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서울대학교 입학에 특별히 유리한 교과 외 활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학업에 열정을 쏟으면서도 조금 더 폭넓은 소양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 방법은 여러분이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활동이든지 협동활동을 통해서 공동체 의식, 배려심, 대인관계, 사회성을 익히고 성장할 수 있는 경험을 쌓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활동 속에서 조화로운 교우관계를 맺어가며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보여주기식의 활동은 의미가 없습니다. 교실에서, 학교에서, 지역에서 내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을 찾아 보세요. 봉사활동의 경우도 가까운 친구, 가까운 곳에서 작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곳부터 찾아 실천해 봅시다.

처음부터 진심에서 우러나와 실천한 활동도 의미가 있지만, 별생각 없이 시작한 봉사활동을 통해서 자신이 성장해 가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봉사활동 확인서에 의미 없이 채워진 수백 시간의 봉사실적보다는 여러분 주위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진심을 다한 활동이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 서울대학교가 생각하는 리더십

'리더십? 난 리더십이 별로 없는데…….'

리더십을 갖추기 위해서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반장, 부반장 임명장이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앞에서 이끄는 리더가 되는 것'과 '리더십을 갖춘 리더가 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공동체활동, 협동학습 등에서 구성원을 배려하며 이끌어가기 위해 노력한 경험은 여러분이 리더의 자질을 배우고 성장하도록 만듭니다.

- 학교생활 내에서 구성원 간의 갈등을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
- 수업 중 모둠 과제 수행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능력
- 토론활동에서 함께 결론을 이끌어가며 설득력 있게 자기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능력
- 동아리활동에서 부원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
- 모두가 주저할 때 친구들을 독려하여 청소를 주도하는 능력

이 모든 것이 장차 글로벌 리더로 성장해갈 여러분이 고등학교 생활 중에 경험할 수 있는 리더로서의 자질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학교 내에서 다양한 기회를 통해 길러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학교생활 속에서 경험하며 쌓아온 다양한 소양은 여러분의 학교생활기록부, 추천서에 기록되고, 입학사정관은 여러분의 학교생활에 주목합니다.

학교는 이렇게 도와주세요

● 더 공부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을 도와주세요

서울대학교에서는 깊이 있는 지적 훈련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학교의 교육과정을 통해 더욱 깊이 있는 학습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학생들에게 능력에 맞는 다양한 과제를 수행할 기회를 부여하여 학습활동에 흥미를 느끼고 깊이 있는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학생들의 주도적인 학습활동을 선생님들의 전문적인 시야로 지켜봐 주시고 조언해 주세요. 학생들이 선생님의 지도와 지원에 힘입어 한층 성장하는 모습을 갖추나갈 것입니다.

서울대학교는 학생들이 스스로 알고자 하는 의지가 학교 내에서 어떻게 발현되었는지, 어떻게 노력하였는지를 평가하고자 합니다.

● 교실 안에서 학생의 재능과 적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과 학업능력, 자기주도적인 학업 노력 등이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강의 전달 위주의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이러한 개인적인 특성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학생들 각자의 개성과 능력, 적성에 따라 충분한 재능과 소양을 발휘할 수 있는 수업 및 과제를 제공한다면 학생들은 학업활동에 흥미를 느끼며 빠져들게 됩니다.

학생들의 수준과 관심분야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학생 개개인의 흥미와 지적 욕구를 채워주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정규 수업의 충실한 학습활동이 기본이 되겠지만 필요하다면 정규 수업 외에도 다양한 학업 관련 동아리활동이나 탐구심화 학습활동을 학교와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의 지도와 후원에 학생들은 교실 밖에서도 큰 힘과 자극을 얻을 것입니다.

서울대학교는 학생이 선생님의 적극적인 지도와 조언으로 입체적이고 다각적인 지적 체험을 해나가는 것이야말로 학교생활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 학업 외 활동도 지원해 주세요

다양한 경험과 재능을 지닌 학생들과 서로 어우러질 때 학생들은 세계 속의 리더로 성장합니다.

고등학교 시절 주변을 돌아보고 함께 어울리며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은 적극적인 생활 태도와 리더십, 사회성을 다지는 좋은 훈련이 될 것입니다. 재능 있고, 관심 있는 학생들의 개성을 담은 다양한 분야의 동아리활동, 체험활동 등으로 학교 안에서 마음껏 역량을 펼쳐 보일 수 있도록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활동이 학생의 능력, 인성, 소양을 키우는 중요한 배움의 과정이 될 것입니다.

●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으로 남겨주세요

같은 교과목의 수업이라도 학교마다 교실마다 수업 내용은 다르게 진행됩니다. 같은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학생들 저마다의 특성과 성장의 모습은 다르게 빛날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입학사정관은 학교생활기록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기록을 꼼꼼히 읽으며 교실에서 어떤 수업이 이루어졌는지 파악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학생은 어떤 능력을, 어떤 소양을 키우고 발휘해 왔는지 판단합니다. 따라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안에 학생 개개인마다의 학습활동 내용을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교과학습 내용이나 학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나치게 세세하고 장황한 내용보다, 학생을 평가하고 파악하는 데 특징적인 소양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요약하여 '학생이 무엇을 배우고 성장했는가'에 대한 개별화된 기록을 담아주세요. 가능한 결과만이 아니라 배움의 동기와 과정, 결과와 후속 활동까지 기록된다면 좋겠습니다.

서울대학교는 학교생활기록부와 추천서를 통해 학생 개개인의 학교생활을 속속들이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각 과목 수업에 임하는 자세, 수업에서 보인 적극성, 학업소양과 특성 등 선생님들이 보는 그대로를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의 진학과 진로에 관심을 보여주세요

학생들이 1학년 때부터 진학과 진로에 관심을 갖도록 도와주세요.

학생들의 진로와 목표, 가치관은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표에 대해 생각을 해본 경험이 있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은 노력의 질과 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충실히 노력해 간다면 최종 진로가 변한다 해도 그동안 쌓아온 역량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1학년 때부터 학생들이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다른 곳이 아닌 학교와 선생님을 의지하며 목표에 따른 고등학교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학교 구성원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모든 학교 구성원들이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교과 담당 선생님들은 수업만 담당하고, 진학을 담당하는 선생님들만 진학에 관심을 갖는 시스템에서는 학생들의 학습 동기가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학생과 교과 교사, 기타 모든 학교 구성원들이 늘 진학 관련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고, 모두가 목표를 향해 함께 협력하는 학교에서 학생들은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진학상담은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주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서울대학교 진학상담을 위해 학원이나 사설 컨설팅에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울대학교와 직접 소통하고 정확한 안내를 받는 분들은 학교 선생님들입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믿고 담임선생님 또는 진학지도 선생님과 진학에 대해 충분히 상담받기 바랍니다. 또는 학교에 진학정보실이 마련되어 언제든지 학생들이 자주 찾고 둘러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서울대학교도 선생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입학서류 작성은 이렇게 하세요

학교생활기록부와 더불어 자기소개서, 추천서는 서울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의 핵심 자료입니다. 서울대학교 입학 사정관은 입학서류를 읽으면서 관련 사항을 서로 비교해보며 지원자의 특성을 파악하게 됩니다.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는 그동안 여러분이 학교생활에서 열심히 노력해온 모습을 자신의 글로 나타낼 좋은 기회입니다. 자기소개서에 여러분의 고등학교 생활 중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내용을 담아 주기 바랍니다.

- 가장 힘들게 또는 신나게 했던 공부 경험과 공부 방법 및 느낀 점
- 고등학교 생활 중 가장 소중했던 경험
- 열심히 노력해온 일, 많은 시간을 쏟은 일
- 자신에게 영향을 준 책
- 학교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사례 또는 친구와 함께 했던 의미 있는 활동

많은 학생들이 자기소개서 작성에 많은 부담을 느끼며, 필요 이상으로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서류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가 자기소개서라고 믿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입학사정관은 학교생활기록부에서 학생 개개인의 학교생활 대부분을 파악하고 평가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충분히 나타나지 않은 나만의 특성을 자기 소개서를 활용하여 보여주면 됩니다.

서울대학교는 학교생활 모습을 담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나만의 모습을 나만의 목소리로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 ‘나’, ‘나의 노력’에 대해 돌아보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면서 대학에 지원하는 동기와 향후 계획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고등학교 기간을 돌이켜 보며 스스로에 대한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기 바랍니다. 내가 그동안 열정을 쏟아왔던 일이 무엇이었는지 정리해 봅시다. 내가 노력해왔던 많은 일들과 과정이 있습니다. 그 사실만을 나열하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느낀 점과 나의 생각을 담아보세요. 어떤 동기와 목적, 어떤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 왔는지, 그 결과가 나에게 어떤 의미 있는 경험으로 남았는지를 기록해 봅시다.

● 나의 모습, 나의 생각을 나의 목소리로 담아 주세요

다른 사람의 자기소개서를 참고로 하다 보면 나만의 생각이나 나만의 독창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조언을 받을 수는 있지만, 나만의 생각과 어투로 나만의 개성을 나타내 보세요. 자기소개서는 면접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사실에 근거한 것만을 기술해야 합니다. 자기소개서는 자신만의 언어로 ‘나’를 솔직하게 드러내는 글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좋은 문장을 만들기 위해 여러 사람이 침묵하여 만들어진 자기소개서로는 학생 본연의 모습을 잘 드러내기 어렵습니다.

● 학교생활기록부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서술하세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그대로 나열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학교생활기록부에 있는 수상경력을 단순히 나열하여 대회명, 수상 일시, 수상 등급 등을 적는데 그치는 지원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학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만으로는 알 수 없는 지원자의 숨겨진 특성, 자질, 노력 등을 자기소개서를 통해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사실을 나열하기보다는 같은 경험, 같은 수상실적이라도 특별히 노력한 과정이나, 어떻게 그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공부해왔는지 등 왜 나에게 의미 있는 경험이었는지를 나타내 주기를 바랍니다.

● 고등학교 기간 중의 활동을 중심으로 서술하세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성장과정을 연대순으로 늘어놓거나 가족관계를 길게 나열한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내용은 지원자의 성격이 형성된 배경 등에 대한 참고 자료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에서는 자기소개서를 통해 지원자의 자질과 학업능력을 확인하고 우리 대학교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므로 고등학교 생활을 중심으로 기술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자기소개서 “NG” 예시

저는 고등학교 기간 동안 교과 성적을 잘 받았습니다. 국어와 수학 과목은 모두 1등급을 받았으며 교내 독서 감상문 대회와 수학 경시대회에서 각각 금상과 은상을 수상한 경험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수학경시반 활동을 하였습니다. 2학년 때부터 해왔고 친구들 6명이 수학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학교 공부와 더불어 독서는 저의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독서를 통해 저는 수업시간에 부족했던 부분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문학시간에 선생님의 추천으로 읽은 황석영님의 '오래된 정원'이라는 소설이 기억에 남습니다. 읽는 내내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고 글을 읽어가면서 한국 현대사의 굴곡이 주인공 남녀의 삶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는 점이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역사는 단절된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도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느끼게 해준 책이었습니다. 그 후 교내 독서 감상문 대회에서 이 책을 주제로 쓴 글이 금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과목 중에서 수학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2학년 때부터 친구들 6명이 수학경시반을 만들어서 활동하였습니다. 3학년 때는 부장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는데, 주제를 정해서 매주 토요일 오후에 모여서 서로 토론도 하고 문제를 풀기도 하였습니다. 수학 가운데 미적분은 어려우면서도 수학적 사고가 여러 방면에 응용된다는 것을 배우게 해주었습니다. 이 수학경시반 활동은 문제 풀이보다는 수학의 원리와 기본 개념을 스스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토론과 다양한 독서에 매진했던 노력이 교내 수학 경시대회 은상으로 이어졌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기술해 주세요

자기소개서에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지원자의 특성이나 자질 등을 나타내야 하지만, 이것이 곧 감정적인 내용을 서술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기소개서에는 구체적인 경험이나 일화 등을 중심으로 사실을 전달하는 내용을 담아주세요. 객관적인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면서, 균형 있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투적이거나 추상적인 표현은 피해 주세요

자기소개서는 남과는 다른 나를 표현하는 글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상투적인 문구나 뜻을 짐작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문구로는 입학사정관에게 '나'를 표현하고 자신의 인상을 강하게 심어줄 수 없습니다. "반장 역할을 잘 해냈다.", "열심히 하겠다." 등의 문구로는 설득력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막연한 내용보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원 활동을 소개하고자 한다면 단순한 경력보다는 임원 활동의 계기나 동기, 가장 의미 있었던 활동 경험, 이를 통해 향후 나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기소개서 “NG” 예시

2학년 학급 부반장: 저는 리더십과 봉사성이 우수합니다. 이러한 점을 인정받아 2학년 부반장에 선출되었습니다. 저는 매사에 열심히 한 결과 반장보다 더 나은 부반장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2학년 때 처음 부반장으로 선출되었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였습니다. 사실 반장이 되지 못했다는 점이 서운하기도 하였지만, 반장을 도와서 학급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학급 친구들과 '하루 한 번씩 칭찬하기'를 시도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어색하게 여기거나 장난스럽게 접근하는 친구들도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도 모르게 기분 좋은 말을 나누는 것이 서로의 습관이 되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2학년을 마칠 때 친구들이 반 분위기가 밝아지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이야기했을 때 조그만 생각의 차이가 매우 다른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 독서경험을 기술하는 4번 항목에도 '자기 생각'을 담아주세요

자기소개서 독서 항목은 지원자의 독서 경험을 통해서 지원자의 생각을 보여주는 자기소개서 안의 또 다른 자기소개서입니다. 따라서 책의 줄거리 요약이나 내용 소개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신에게 의미 있는 영향을 주었던 책을 3권 선정하여 그 책이 본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고 어떤 생각을 하게 하였는지, 또는 자신에게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 등의 내용을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서 선정은 지원하는 모집단위와 관련성이 없어도 됩니다. 분야를 막론하고 현재의 자신에게 가장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되는 책을 선정하여 경험과 생각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추천서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을 서울대학교에 구체적인 언어로 소개해 주시는 자료가 추천서입니다. 학생들의 고등학교 3년간의 학교생활을 가장 가까이에서 직접적으로 관찰해온 분들이 선생님이며, 교육적인 관점에서 학생들의 학업 특성을 가장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계신 분들이 선생님입니다.

● 지원자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 작성해 주세요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추천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지원자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 추천해 주셔야 합니다. 평소 지원자를 관찰해 왔으며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평가할 수 있는 추천인이 추천서를 작성해야 미사여구만 이어지는 의미 없는 추천서가 되지 않습니다. 유명인사에게 추천서를 받겠다고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자의 성격, 교육 환경, 잠재력, 고등학교 생활 전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분이 작성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혹, 구체적인 학업능력에 대해 담임선생님이 잘 모르는 경우 교과 담임선생님께 학생을 그간 관찰해온 내용을 전달 받아 작성해 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 학교생활기록부로는 충분히 파악이 어려운 내용들을 중심으로 서술해 주세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내용이 다시 추천서에서 그대로 나열되어 있는 경우도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있는 수상경력을 단순 나열하거나, 교과 성적을 추천서에 다시 강조하여 적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추천서야말로 학교생활기록부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지원자의 숨겨진 특성이나 자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형 자료입니다. 추천서에서는 다른 자료로는 보여줄 수 없는 지원자의 인성, 학업 관련 특성, 장점/단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일화를 기술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학년 1학기 교과 성적이 매우 떨어졌을 때 지원자의 건강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어려운 가정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내용을 기술함으로써 지원자의 학업능력 평가 시 고려될 수 있는 내용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 추천서 “NG” 예시

지원자는 학업능력이 우수합니다. 지원자는 1학년 1학기 때 국어, 수학, 사회, 영어에서 1등급 받았고, 1학년 2학기 때에도 국어, 수학, 기술가정, 영어에서 1등급을 받았습니다. 2학년 1학기 때에는 한국지리, 경제 과목에서 1등급을 받았고 2학년 2학기 때에는 사회문화를 제외하고 모두 1등급을 받았습니다.

지원자는 봉사성이 우수합니다. 3년간 학교에서 50시간이 넘게 봉사활동을 하였고 학교 밖에서도 30시간이나 봉사 활동을 하였습니다.

지원자는 리더십이 우수합니다. 1학년 2학기 부반장, 3학년 1학기 반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원자는 교우관계가 좋아서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 수려한 문장보다 내용이 중요해요

추천서는 내용을 비교적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추천서 작성을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글을 잘 쓰기로 유명한 교내 국어선생님이 모든 지원자의 추천서를 검토해야 하나 고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평가에 도움이 되는 추천서는 문장이 수려한 추천서가 아니라 내용이 충실한 추천서입니다. 지원자를 평가할 때 고려할 내용들을 충실하게 담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추천서를 작성하는 분들은 이를 읽는 입학사정관이 무엇을 궁금해할지, 어떤 내용을 찾고 싶어 하는지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자에 대해 솔직하게 서술해 주세요

추천서에서 지원자에 대해 무조건 칭찬을 나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저히 학업성적이 떨어지는 학생을 최상위권 학생이라고 쓰거나, 함께 추천서를 써주시는 같은 학교 모든 학생들에 대해 봉사성이 우수하다고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추천서 내용 자체를 신뢰하기 어렵고, 지원자를 평가할 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부족한 점이 있는 학생이라면 이에 대해 솔직하게 언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이 선발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또한 추상적인 문구보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자세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천서 “NG” 예시

지원자는 봉사성과 리더십이 매우 우수합니다. 비록 학교 공부에 신경을 쓰느라 봉사활동이나 임원 활동, 또는 리더십을 보여주는 활동을 거의 하지 못했지만, 지원자의 봉사성과 리더십은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례로 들 만한 내용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지원자의 봉사성과 리더십이 훌륭하다는 점은 제가 보증합니다.

대학에 입학하면 아주 훌륭한 학생으로 성장하리라 확신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많은 선생님들이 학교생활기록부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궁금해하십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평가에 도움이 되는 학교생활기록부는 어떤 것인가요?

학교생활기록부는 말 그대로 학교생활을 사실 그대로 기록한 서류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교육부가 정하는 지침에 따라 작성하되, 다음과 같은 내용을 유의해 주시면 됩니다.

● 학교생활기록부 기술 내용에서 찾아내고자 하는 정보는 무엇인가요

학습 경험과 학생 개인별 경험의 기록

서울대학교는 성적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교과수업 중에 보여준 학습 노력, 학업수행 과정, 열의, 학업소양, 적성, 학습 방식 및 결과 등 다양한 내용을 확인하여 학생들의 학업 역량을 평가합니다. 이러한 역량은 성적에서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수치 이외에 수업시간에 순간순간 드러날 것입니다. 교실에서의 수업은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학생들은 자신의 학업 역량을 키울 기회로 삼아 주도적으로 노력하여 소양을 다지게 됩니다.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이 수업 중에 보인 개별적인 노력을 학교생활기록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입학사정관이 중점을 두고 파악하고자 하는 또 한 가지는 학생 스스로의 경험과 노력입니다. 그러므로 학교생활기록부에서 학업 결과 이외에도 학생 개개인이 어떤 노력과 학업 특징을 보여 왔는지, 특별한 학업소양을 어떤 학습과정에서 어떻게 보여 왔으며 어떤 성장을 보였는지를 나타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무조건 장황한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담을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내용들이라면 간추려서 주로 학교소개자료에 기록하고, 학생 개개인이 보인 특징적인 학업소양은 학교생활기록부에 선별하여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창의적 체험활동의 세부활동을 기록함에 있어서도 공통적인 사항은 학교소개자료에 기록해주시고 학교 생활기록부에는 학생들의 개별적인 특성이나 소양, 개별적인 경험이나 노력이 나타나도록 작성해 주셔야 학생들 개개인의 특성을 파악하여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서울대학교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우수하다고 판단하시는 인재를 선발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선생님들이 기록한 학교생활기록부를 더욱 면밀히 살피고 있습니다.

학교소개자료

학교소개자료는 학교를 평가하기 위한 자료가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 평가는 학생에게 주어진 기회와 여건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학생이 고등학교 생활을 보내는 동안 어떤 교육과정이 제공되었는지, 교내 학업 및 학업 외 활동의 기회는 얼마나 제공되었는지, 학생 선택의 기회가 얼마나 있었는지 등을 고려합니다. 이러한 여건을 학생이 얼마나 주도적으로 활용하여 얼마만큼 노력해왔는지 평가하기 위해서 학생이 속해 있던 교육 환경을 이해 하기 위한 자료로서 학교소개자료를 참고하게 됩니다. 학교소개자료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담을 수 있습니다.

- 지역 및 학교 개관
- 신입생 선발 방식
- 교육과정 편성 현황
- 특색 사업(심화 프로그램, 체험활동 프로그램, 방과후 프로그램, 특성화 프로그램 등)
- 교과 성취도 분포 특성
- 교내 시상 내역
- 평가 방식
- 교과 외 영역 관련 활동 내용 등

● 다른 학교와 구별되는 특징적인 학습 환경을 중심으로 작성해 주세요

학교소개자료를 별도로 구성하기 어렵고,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해야 할지 몰라 학교교육계획 파일 전체를 학교 소개자료로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소개자료에는 평가에 참고가 될 수 있는 해당 학교만의 주요 정보를 요약하여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해당 고등학교의 신입생 구성 특성 및 선발 방식, 작년 대비 달라진 학교 현황, 특별한 지역여건, 특색 사업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소개해 주시고, 특징적인 교과수업 내용이나 교내 프로그램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생활기록부를 보완하는 정보를 담아주세요

학교소개자료는 학교생활기록부를 보완하여 지원자의 교과, 교과 외 영역에 대한 보충자료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수업의 운영 방식이나 교재, 평가 방식,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방식과 수강자 구성 방법 등과 같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지 않은 해당 고등학교에 대한 정보에서 지원자가 경험한 학업 및 학업 외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이 파악되고 보다 정확한 평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지원한 학생이 참여한 활동에 대해 자기 소개서나 추천서에는 단순히 교내 OO탐구발표대회에 참여했다는 사실만 기록되어 있으나 학교소개자료에 대회의 참여자 선정 과정, 탐구 절차, 참여 인원, 결과물 등에 대해 소개되어 있다면 해당 활동에 대한 증빙자료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학교소개자료의 각 항목에 답을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세요

학교소개자료는 학교가 서울대학교에 지원하는 학생의 3개년 간의 교육활동을 서울대학교에 요약적으로 안내해 주는 자료입니다.

학교소개자료는 당해 연도 지원자 중 재학생 지원자를 평가하는 데 주로 사용합니다. 졸업예정자인 고3 학생의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졸업생은 해당 학년에 제출한 학교소개자료를 참고합니다. 모든 자료는 학교의 상황에 따라 자유 형식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기존 학교소개자료 양식의 세부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시된 내용을 모두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개조식으로 기술해도 무방합니다.

2018학년도 양식은 추후 모집안내에서 확정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학교 현황

- 계열 구분 없이 과정을 운영했다면 '과정/계열/과'를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정 등을 구분했다면 '과정/계열/과'를 나열하고 과정별 학급 수와 학생 수를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예시) 학생 현황

학년	과정/계열/과	학급 수	재적인원(학생 수)		
			남	여	계
1학년					
2학년					
3학년	인문사회과정	2	25	30	55
	이공과정	4	50	50	100
	예술과정	1	15	20	35
	자동차학과	2	40	20	60
	계	9	130	120	250

- 기숙사 운영 여부는 현재 3학년 지원자를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기숙사를 완공했으나 3학년은 입사하지 않았다면 올해의 학교소개자료에는 기숙사를 운영하지 않았다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교육환경 및 구성원 특성 (1쪽 이내)

학교 및 지역의 교육 환경에 대해 학교의 입장에서 서술해 주시기 바라며, 각 항목에 서술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년대비 주요 차이점이 있다면 항목별로 그 내용도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교 및 지역의 교육환경

- 학교 교육환경
 - 학생의 학습 및 활동에 영향을 주는 학교 환경
 - 예시) 대도시 도심에 위치하여 학교 인근 거주 학생보다는 통학 거리가 먼 학생이 다수 있음.
 - 예시) 매년 개최되는 지역 축제에 학생들이 대거 참여하여 지역 문화를 공유함.
 - 교실의 특성
 - 교과교실, 특별교실, 실험실, 토론실, 실기실습실 등 다양한 학습 공간
 - 강당, 소극장, 시청각실 등 발표 공연 공간
 - 학생회실, 동아리실, 학생간담회실 등 학생 활동 공간
 - 독서실, 자율학습실 등 학생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학습 공간
 - 교실 이외의 생활관, 기숙사, 상담실 등 부대시설
 - 학습 및 학생 활동에 대한 교사 및 학생의 열정
 - 학교의 전통 등 학생의 학습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유형, 무형의 환경 요인
- 지역 교육환경
 - 학생의 교육활동에 영향을 주는 지역의 특성
 - 지자체 지원, 지역 연합 교육과정 운영 등 지역 연계 교육
 - 지자체의 인적, 물적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원어민 강사 지원 등
 - 거점학교 운영, 지자체 주도 연합 방과후학교 운영 등

나. 구성원의 특성

① 학생(신입생 선발 및 배정 방식 등)

- 지원자(현 고3)가 입학할 때의 학생 선발 및 배정 방식
 - 평준화 지역이라면 평준화 지역의 학생 배정 방식
 - 중점학교 운영학교의 경우 후기 배정에 앞서 우선 배정한 사례 등 별도 기술
 - 비평준화 지역은 학생부 성적 및 연합고사 성적 반영 등 구체적으로 제시
- 학생의 특성
 - 학생 구성의 동질성 및 이질성
 - 학생 활동의 특징
 - 학교 및 교육 여건에 대한 학생의 요구
 - 학교 전통의 영향으로 인해 나타나는 학생 특성

② 학부모

-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 등

3. 교육과정 운영 현황 (2쪽 이내)

‘교육과정 운영 현황’의 각 항목에서 기대하는 기록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학교의 교육목표와 운영방침

- 국가 수준 및 시·도 교육청의 목표에 해당하는 내용보다는 학교가 정한 특징적인 목표를 중심으로 제시
- 운영방침은 현재 졸업예정인 지원자를 대상으로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형태로 교육과정을 운영했는지를 기술
 - 수준별 교육과정, 심화·보충 교육과정 운영 등 수월성 교육과 학력 제고를 위한 학교의 노력
 - 선택 교육과정 운영의 특징: 학생 선택과정 제공 방식, 소수 학생 희망과목 개설 현황 등
 -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 및 인성 교육 추진의 특징
 - 방과후학교 운영의 특징

나. 교과별 교육과정 특징(수업 내용과 방법, 평가방법)

- 졸업예정 지원자에게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제공된 교육과정 중 학생의 사고력, 문제해결력 등 지적 성장을 위한 수업 내용 및 방법과 평가의 특징 기술
 - 대부분의 교과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면, 학기별, 학년별 수업방법의 특징
 - 특정한 교과(과목)에서 특징 있는 수업 및 평가를 한 사례
 - 교육과정 편성 상 학기별로 특징 있는 과목 또는 활동을 제공한 사례

다. 심화교육 프로그램(내용/대상/교재 등 기재)

- 심화교과 개설 사례
- 지역 연계 심화학습 프로그램 운영/참가 등 사례

라. 특색 사업(프로그램) 등

- 학교의 특색 프로그램 사례
 - 학업(학습) 관련 프로그램 사례
 - 예시) 토론회를 운영하기 위해 3, 4월 중 국어과와 사회과 중심으로 토론 교육을 실시하고, 지원자 대상 특별 강연 및 예비 토론을 5월 중 실시한 뒤 6월에 본선 대회를 실시함
 - 예시)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교과수업에서 시행한 과제연구 수행평가 우수 사례에 대한 발표대회 실시, 과목별 시상
 - 방과후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등 학생의 지적, 정서적 성장을 위해 학교가 프로그램을 제공한 사례
- 교육청 및 지자체와 연계한 특색 프로그램
 - 창의경영학교 운영, 학교 간 교육과정(교육과정 클러스터) 운영 등 프로그램 운영, 참여
- 인성 교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
 - 동아리 발표, 학생 자치 활동 등
 - 협동학습 프로그램
 - 생활관 교육, 국토 순례 등 인성 교육 관련 프로그램

4. 기타 사항 (1쪽 이내)

‘기타 사항’에서는 이전 학년도 대비 주요 변경사항이나 학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을 경우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록해 주시기 바라며, 이 외에도 서울대학교가 귀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간단히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 연도 대비 주요 변경사항
 - 지난해에 제출한 학교소개자료와 달라진 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지원자에게 제공된 학교 교육활동의 주요 변경 사항 위주로 제시
 - 교명 변경, 기숙사 입사 교육, 교육청 주요 사업 대상 학교 운영 등
 -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특징적, 대폭 변화
 - 예년과는 다른 학습 내용, 방법, 평가 개선 및 심화학습 제공 사례
 - 학교 및 지역 환경의 변화
 - 학생 선발 및 배정 방법의 변화에 따라 입학생 구성이 달라진 사례
 - 예시) 금년 3학년부터는 비평준화 지역에서 평준화 지역으로 전환된 첫 졸업생임
- 일반적인 평가 기준의 특징 또는 특정한 과목의 평가 기준의 특징
 - 평가 개선 사례: 지필평가 이외에도 수행평가를 통하여 학생의 학습 경험을 평가하는 사례
 - 소수 학생 수강 과목
 - 예술·체육 평가의 경우 성취 기준을 높게 설정하여 많은 학생이 ‘우수’로 평가되지 못한 사례
- 1~3항에 언급하지 못한 학교의 자랑거리 등

※ 학교소개자료는 지원자의 학생부 기록 및 자기소개서, 추천서에서는 알 수 없는 학교의 교육환경을 이해하여 학생 선발에 도움을 받기 위한 자료입니다. 학교 환경 및 주어진 여건 속에서 학생이 나타낸 주도적인 노력과 역량을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함이며, 학교소개자료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학교소개자료는 필수제출자료는 아닙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의 오해와 진실

일반

오 해 1 진 실 1

수시모집에서 서류평가 방식이 전형마다 다른가요?

아닙니다.

서울대학교의 수시모집은 지역균형선발전형, 일반전형,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I 이 있습니다. 이 세 전형은 모두 학생부종합전형이므로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를 활용하여 평가합니다. 또한 학교소개자료를 참고하기도 합니다. 세 전형의 차이점은 지원 자격에 있으며, 서류평가 방식은 같습니다.

오 해 2 진 실 2

지역균형선발전형은 각 학교마다 계열별 1명씩 지원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지역균형선발전형의 지원 자격은 소속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졸업예정자(조기졸업예정자 제외)로 고등학교별 추천 인원은 2명 이내라는 제한 조건이 전부입니다. 추천 권한은 소속 고등학교장에게 있으며, 각 학교를 대표할 만한 우수한 학생들이 추천을 받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 해 3 진 실 3

지역균형선발전형으로 추천할 때 성적순으로 추천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교육과정의 취지에 따라 학생이 선택하는 교육과정 또는 다양한 진로집중 과정을 설정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되면 학생의 성적이 등급 평균 순서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적순'의 의미가 모호합니다. 또한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교과 성적만 평가하여 선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성적순으로 추천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각 학교를 대표할 만한 우수한 학생들을 고등학교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해 4 진 실 4

수시모집으로만 선발하는 모집단위는 정시모집에서는 전혀 선발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서울대학교 신입생이 되고자 준비하는 학생은 수시모집만으로 선발하는 모집단위를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다만, 수시모집으로만 선발하는 모집단위에서 합격자 총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음악대학을 제외하고 미충원 인원을 정시모집에서 선발합니다.

오 해 5 진 실 5

서류평가에서 지원자의 생활 여건이 어려울수록 좋은 평가를 받나요?

아닙니다.

생활환경이나 여건 자체가 선발의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I 에서의 생활 여건 등은 자격 기준이며, 생활 여건이나 교육 환경의 정도에 따라 선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능력, 학업태도 및 학업 외 소양을 평가하여 선발하며, 주어진 여건에 비추어 의지와 열정이 뛰어난 지원자라면 성장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평가할 수는 있습니다.

교육과정 및 학교생활기록부 교과활동

오 해 6 진 실 6

서류평가에서는 교과 성적순으로 선발하나요?

아닙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활동과 교과외활동 및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을 바탕으로 학생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교과 성적순으로 선발하지 않으며 성적을 산출하는 공식이나 보정 점수를 주는 방식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 해 7 진 실 7

성적이 꼭 향상되어야만 좋은 평가를 받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적이 향상되면 떨어지는 것보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고학년이 될수록 동일과목 수강자가 적어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평가합니다. 즉, 선택한 과목의 수준과 수강자 구성 및 인원수로 인하여 단순히 등급이 내려지는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그런 경우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오히려 성적을 받기 수월한 과목만 이수하여 결과적인 수치만 좋게 받으려 한 경우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 해 8 진 실 8

소수 인원수로 구성된 과목을 이수해서 석차등급이 다소 낮아지면 평가에 불리한가요?

아닙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교과 성취도를 평가할 때 단순히 등급만을 반영하거나 원점수만을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지원자가 이수한 과목과 함께 수강한 학생들의 구성, 수강 인원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므로 소수 학생이 이수한 과목 때문에 등급이 낮아졌다고 해서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학생이 자신의 진로 목표를 고려하여 소수 선택 과목을 이수하는 노력을 보일 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 해 9 진 실 9

전문과목(심화과목)을 이수하면 유리한가요?

아닙니다.

전문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의 학생을 제외하면 모든 학생이 전문과목을 수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은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서 학교가 제공하는 교과목을 충실히 이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컨대 자연계를 지원하는 학생이라면 과학 II 에 해당하는 과목을 충실히 이수하기를 권장합니다만, 반드시 전문과목을 이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 해 10 모집단위별로 반영 교과가 정해져 있나요?

진 실 10 아닙니다.

모집단위와 상관없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모든 교과 성적에 평가에 반영됩니다. 교과 학습발달상황에 기재된 교과 성취도(내신)의 3년간 이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학생이 이수한 과목의 내용, 그 과목에서 성취한 등급, 원점수, 수강한 학생들의 평균, 표준편차, 인원 등을 고려하여 학생이 공부한 내용과 그 우수성을 평가합니다. 원점수와 석차 등급으로 표현되지 않은 예술·체육교과 성적 내용도 반영합니다. 서울대학교는 학교에서 충실히 공부하여 모든 교과에서 고르게 우수한 면모를 지닌 학생을 높게 평가합니다.

오 해 11 교과이수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원할 수 없나요?

진 실 11 지원할 수 있습니다.

수시모집 지원 자격과 교과이수기준 충족 여부는 별개의 내용입니다. 교과이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도 지원하는 데는 제한이 없습니다. 교과이수기준은 서울대학교를 지원하는 학생이라면 교육과정 내에서 폭넓은 교과를 이수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담아 기준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에서도 가능한 지원 시점 이전까지 고른 교과목을 이수하여 학습소양을 갖추기를 권장합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오 해 12 교외 수상실적 등 소위 스펙이 많은 학생을 선발하는 것 아닌가요?

진 실 12 아닙니다.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의 수상실적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서류평가는 학생이 학교 안에서 노력한 교과/교과 외 활동을 평가에 반영합니다. 학생이 노력한 내용의 동기, 과정, 결과 모두를 분석하여 학생이 지닌 학업능력, 학업태도,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학생의 우수성을 평가합니다.

특히 2015학년도부터 대학입학전형에서 외부 수상실적을 기재하는 것이 제한된다는 점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자기소개서 및 추천서 공통양식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해 13 학생회장 경험이 있으면 유리한가요?

진 실 13 아닙니다.

리더 역할을 한 경험 자체만을 긍정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또한 리더 역할을 할 기회를 얻지 못한 지원자라고 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리더십은 반드시 학생회장 등 대표자로 활동하는 것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직책을 맡았는지보다는 어떤 경험 속에서 리더십을 발휘했는가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오 해 14 동아리활동은 지원 모집단위 관련 학문 분야와 일치해야 유리한가요?

진 실 14 아닙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내에서의 동아리활동은 학생의 소양을 넓히는 기회입니다. 학습동아리, 체육동아리, 예술동아리, 봉사동아리, 여가동아리 등 지원자가 선택한 동아리의 종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동아리활동을 통해 학생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하였는지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따라서 동아리활동이 지원 모집단위와 일치해야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오 해 15 봉사활동 시간이 많을수록 유리한가요?

진 실 15 시간의 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봉사활동의 형식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활동의 배경, 과정 등 학생이 경험한 봉사활동의 내용을 고려합니다. 아울러 봉사활동은 종합평가의 일부분이며, 무조건 많이 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 해 16 학교생활기록부의 진로희망사항과 지원하는 모집단위가 관련이 없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진 실 16 아닙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희망은 항상 변할 수 있으며 이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서울대학교는 학생의 진로희망사항에 기록된 직업보다 학생의 목표를 바탕으로 길러온 역량을 평가합니다. 학생 스스로가 설정한 목표를 위해 공부한 배경, 과정, 결과를 종합할 때 비로소 학생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노력과 성취가 지원한 모집단위 학업에 필요한 소양을 갖춘 과정이라면 진로희망기록이 지원 모집단위와 연관성이 적더라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지원하는 모집단위에 합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특정 교과외 활동이나 결과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지원 모집단위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역량을 폭넓게 갖추기 바랍니다.

오 해 17 자연계열 학생에게도 독서가 중요한가요?

진 실 17 그렇습니다.

분야를 막론하고 독서는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데 있어 기초가 됩니다. 따라서 독서 능력이 부족하면 대학교에 입학하여 학업을 이어가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어느 분야든 폭넓은 독서를 통해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 노력한 학생을 높이 평가합니다.

오 해 18 R&E를 해야만 좋은 평가를 받나요?

진 실 18 아닙니다.

학생이 특정한 활동이나 경험을 한 사실만으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학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은 교과수업과 수업 중 과제 수행 등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업과 관련하여 교실과 학교 안에서 노력한 내용은 그 배경, 과정, 결과가 체출하는 서류에 잘 드러날 때 의미 있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주어진 여건 속에서 다양한 학습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자 하는 주도적인 노력에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학생이 주도적으로 선생님과 함께 하는 연구/탐구 활동을 한 경험이 의미 있을 수 있으며, 경험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서 학생 개인이 경험하고 노력한 자신만의 이야기를 결과 위주가 아니라 과정과 함께 보여주기 바랍니다.

자기소개서

오 해 19 각 제출서류마다 배점이 정해져 있고, 가장 높은 배점은 자기소개서 아닌가요?

진 실 19 아닙니다.

소위 스펙과 기타 증빙서류가 중요하게 다루어진다는 오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자기소개서가 배점이 가장 높은 서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생부종합전형이라는 명칭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서류평가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서류는 '학교생활기록부'이며 '종합평가'란 제출서류의 내용을 모두 종합하여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각 서류의 정해진 반영 비율이 없으며 각 서류마다 일정한 배점을 부여하여 합산하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자기소개서, 추천서, 학교소개자료 등의 내용을 유기적으로 종합하여 학생의 우수성을 판단하는 평가 방식을 사용합니다.

오 해 20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과목을 인터넷 강의를 통해 공부했다면 자기소개서에 쓸 수 없나요?

진 실 20 아닙니다.

자기소개서는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지원자가 학습하고 경험한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합니다. 그러나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사항은 쓸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제한 사항은 자기소개서 공통 양식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제한 사항 이외에는 지원자가 고등학교 재학 중 더 알고 싶어서 한 독서활동, 방송 강좌 수강 등 학습 노력의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의 학습 경험은 일차적으로는 학교 내 교육과정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교 교육활동에 참여를 소홀히 한 채 혼자 공부한 기록을 앞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추천서

오 해 21 추천서가 당락을 좌우하나요?

진 실 21 아닙니다.

추천서는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만으로는 파악하기 힘든 지원자의 특성을 알고자 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지원자를 관찰한 결과나 학생과의 대화를 통해 인지한 사실 등을 추천인의 관점에서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추천서는 필수 제출서류이므로 제출하지 않으면 불합격됩니다.

증빙서류

오 해 22 증빙서류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진 실 22 아닙니다.

증빙서류는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입니다. 필수로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며 필요할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내용 중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지 않아 반드시 증명하고 싶은 내용이 있을 경우에만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빙서류 자체는 평가의 대상이 아니며 그 분량도 3개 항목(1개 항목당 A4용지 크기 기준 단면 3쪽 이내)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학교소개자료

오 해 23 학교소개자료는 학교를 평가하기 위한 자료인가요?

진 실 23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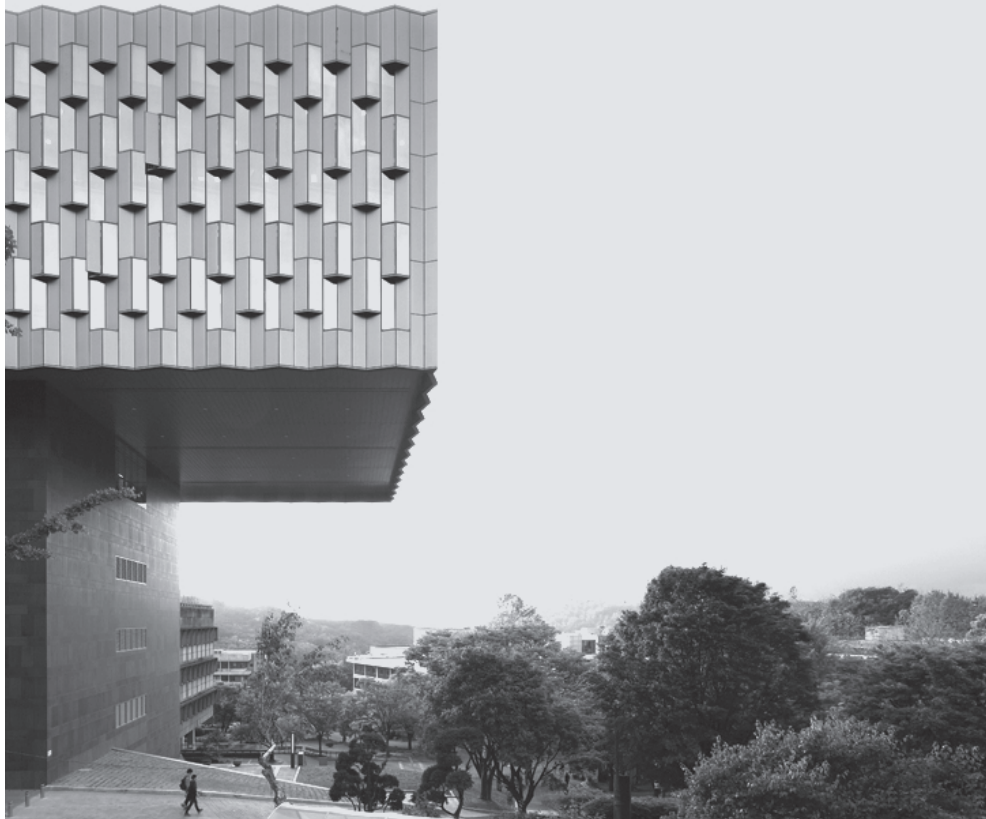
학교소개자료는 학생이 재학 기간 중 제공받은 학습 환경을 이해하기 위해 참고하는 자료입니다. 학교의 교육 이념, 학교가 제공한 특색 교육활동, 학교 교육과정의 특징, 교내 시상 등 모든 자료를 참고로 활용할 뿐, 학교의 우열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학교 교육과정을 보고 지원자가 수강한 과목과 학교 교육과정을 비교해서 학생의 과목 선택 경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받습니다. 또는 학교가 토론회를 중요한 대회로 학교소개자료에 소개하였을 때 지원자의 참가 여부는 지원자의 학교생활 참여도를 판단하는 데 참고가 되기도 합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오 해 24 서류평가에서 수능 점수가 좋을수록 유리한가요?

진 실 24 아닙니다.

수시모집에서 수능 점수는 최저학력기준으로만 사용합니다. 수시모집 지역균형선발전형에서 서류평가와 면접을 통해 합격 대상자가 된 학생들은 마지막 단계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통과해야만 최종 합격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준 등급의 충족 여부만을 따지는 것이므로 기준 등급보다 월등히 높은 점수의 획득 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수시모집 일반전형은 미술대학과 사범대학 체육교육과를 제외한 전 모집단위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또한 수능 점수를 전형요소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최저학력기준이 폐지된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I 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수시모집 일반전형이나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I 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모집단위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서울대학교가 정한 '수능 응시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며 수능에 응시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지역균형선발전형 지원자, 그리고 일반전형 중 미술대학과 사범대학 체육교육과에 지원하는 지원자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므로 수능에 응시해야 합니다. 이때 수능 응시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하므로 모집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접 우수자가 들려주는 학교생활 이야기

인문대학 노어노문학과 ○○하 (일반고)
 인문대학 언어학과 ○○현 (일반고)
 인문대학 철학과 ○○성 (일반고)
 인문대학 미학과 ○○진 (자율형공립고)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지 (일반고)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영 (일반고)
 자연과학대학 통계학과 ○○찬 (일반고)
 자연과학대학 물리·천문학부 ○○범 (일반고)
 자연과학대학 지구환경과학부 ○○호 (일반고)
 공과대학 기계항공공학부 ○○철 (일반고)
 공과대학 원자핵공학과 ○○우 (과학고)
 농업생명과학대학 산림과학부 ○○현 (일반고)
 농업생명과학대학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석 (일반고)
 생활과학대학 소비자아동학부 ○○민 (자율형공립고)

시인 정현종의 「방문객」은 언제나 그렇듯 설렘을
 배달한다. “사람이 온다는 건 /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 그는 / 그의 과거와 현재와 / 그리고 /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2017학년도 서울대학교 신입생. 그 중에서도
 면접 우수자. 이들에게서 듣는 진솔한 학교생활
 이야기. 마음의 귀를 열고 경청해보자.

가장 기억에 남아요

고교 시절 유의미한 활동 하나를 꼽으면
무엇인가요?

발터 벤야민은 어디선가 “모든 결정타는 왼손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학생들은 서로 다른 음색이지만 한목소리로 말한다. “공부를 교과·비교과란 틀에 맞춰 나눌 수 있을까요? ... 아, 의도한 바는 아니었는데 그게 가장 도움이 되었네요!”

**인문대학
노어노문학과**
○○하

좋아하는 몇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러시아 문학입니다. 중3 때 읽었던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들을 고2 때 다시 읽으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식으로 예전보다 깊이 있게 파고들었어요. 사서 선생님과 대화하며 다른 책들도 찾아보고, 대입을 딱히 염두에 둔 것은 아니었는데 독서 감상문을 여러 편 작성하면서 진로를 정하게 되었어요. 저는 어릴 적부터 책 읽기에 거부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책을 통해 배경지식을 쌓아 학업도 비교적 수월했어요. 예를 들어 윤리 과목을 3학년이 되어서 배울 수 있었지만, 1학년 때 『정의란 무엇인가』, 『소피의 세계』 등을 읽어 두어서 그런지 친숙했어요.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영

고등학교 3년 동안 주 1회, 1시간씩 새터민 어린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쳤어요. 마냥 침울한 분위기 일 줄 알았는데, 밝고 귀엽고 저한테 달라붙는 아이들을 만나면서 오히려 제가 치유되었어요. 물론 몸이 고되기도 했지만 마음이 기뻐서 그랬는지 다녀오면 확실히 공부도 더 잘 되었어요. 이 활동을 계속하지 않으면 힐링^{healing}할 곳을 찾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그러다가 저도 모르게 아동 언어심리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북한말과 중국어에 익숙하니, 초등학교 입학 후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설핏 어떻게 도울까 고민하다가 심리학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자연과학대학
통계학과**
○○찬

저는 야구 보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아마 고3 때 가장 많이 봤을 거예요. 자투리 시간에 야구기록 분석^{Sabermetrics} 하는 걸 즐겼는데 하고 싶은 주제를 다루니까 1학년부터 통계에 친숙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내신이 별로 안 좋아서 막연히 정시를 염두에 두었지만, 서울대의 경우 수시로만 통계학과 신입생을 모집해서 학교생활을 더 충실히 하게 되었어요.

**공과대학
기계항공공학부**
○○철

틈틈이 음향학·화성학 공부를 하면서 작곡을 했어요. 저는 쉽게 질리는 성격이라 장시간 공부하면 집중력이 떨어져서 환기가 필요한데, 작곡이 그 활력소가 된 것 같아요. 특히 ‘불금’이 되면 공부가 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매주 금요일 저녁엔 선생님께 양해를 구해 야간자율학습에서 빠지고 곡을 만들었습니다. 관련 책도 찾아보고 프로그램도 익히면서 작곡을 하다보면, 어느새 다시 공부할 힘이 생겼거든요.

**공과대학
원자핵공학과**
○○우

학교 기숙사에서 지내고, 이렇다 할 전자기기도 사용할 수 없어 주로 도서관에서 지냈어요. 뜻밖에 독서는 충전의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책을 통해 진로도 정할 수 있었어요. 내신준비만 했다면 저는 서울대학교에 못 왔을 겁니다. 진로는커녕 지쳐서 중도에 공부를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물론 독서가 학업성과와 직접적 관련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책을 매개로 생각, 고민을 하다 보면 어느덧 공부의 폭과 깊이가 진전된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농업생명과학대학
산림과학부**
○○현

부끄럽긴 한데 쉬는 시간마다 소설 창작을 했어요. 귀가해서도 글을 썼고요. 언어의 한계가 사고의 한계란 생각에 글을 쓰다가 막힐 때는 자연스레 책에 손이 갔고 그러면서 좋은 문장을 제 것으로 만들고, 그렇게 경험이 쌓이다보니 의도한 바는 아니었는데 작문 실력이 향상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교내 소논문발표대회에 별 부담 없이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소논문 주제로 삼은 것이 조림造林이었는데, 탐구하면서 ‘내가 정말 공학에 관심이 있나?’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글쓰기를 계기로 환경공학에서 산림과학으로 희망전공을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생활과학대학
소비자이동학부**
○○민

담임선생님께서 사고력을 유난히 강조하셨어요. 중국어를 전공하신 분으로, 학급에 고전읽기스터디를 만드셨어요. 몇몇 학생이 참여했고 그 중 한 명이 저였습니다. 고2~3학년 동안 책 읽고 토론하면서 사유하는 힘이 커졌고, 문득 ‘대학에 가서 공부하면 재미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친구들이 대부분 하는 소논문 작성은 안 했어요. 그저 『소크라테스의 변론』, 『자유로부터의 도피』 등의 고전 읽기에 매진했어요. 그러다보니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 ‘아동가족학’에 대해 쓸 말이 없어서 걱정도 되었지만 열심히 공부한 모습을 입학사정관께서 어디서든 알아보실 거라 믿었어요.

공부는 이렇게 했어요

후배들에게 소개할만한 공부의 비결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연구결과에 따르면, 누군가에게 설명하면서 배울 경우 ‘강의 듣기’ 대비 무려 18배의 학습효율을 기대할 수 있다. 플라톤이 교육을 일컬어 사람과 사람의 밀도 높은 만남^{synousia}이라 한 대목과 상통한다. “음, 공부네요, 우선 저 자신을 납득시키는 과정이고요, 대화하면서 또 하나의 안목을 얻는 거라 생각해요. 꼭 드리고 싶은 말인데, 혼자서 하면 오래 못 가고 반드시 한계에 부딪혀요.”

인문대학 언어학과 ○○현

입학본부 웹진 「아로리」를 보고 교육과정을 공유하는 ‘클러스터’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웹 검색을 해보니 마침 인근 학교에 프랑스어 개방 수업이 개설되어 있더라고요. 당시 2학년 말이었고, 신청을 하면 3~1학기 매주 토요일에 수업을 듣는 거라 잠시 망설이기도 했어요. 대입과 별 상관도 없고, 실력이 일취월장한다고 해서 공인어학점수를 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때 서울대학교 인재상이 떠올랐어요. 학교 공부 너머의 배움에 대한 열정이 있는가. 제가 그런 사람이라 믿었어요.

인문대 미학과 ○○진

좋아하는 일을 업으로 삼는 것에 대한 회의로 입시미술을 그만두고, 작품과 관객을 잇는 큐레이터를 꿈꾸면서 소통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간혹 “그렇게 진지한 이야기는 왜 하나?”는 편지를 듣기도 했지만, 기숙사에서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생각이 많이 정리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다니던 학교는 학생 수도 적고 불과 몇 점 차이로 내신등급도 바뀌었지만, 토레와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은 안타까워요. 들어주고 말하면서 책도 읽게 되고 무언가 조사도 하면서 사유가 확장되는 경험을 자주 했거든요. 다른 시각을 공유하면서 내면을 살피우는 일이 ‘더 현실적’이라 여겨집니다.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지

중학생 때 시간 대비 성적이 오르지 않아 고민이 많았어요. 이것저것 해보다가 찾게 된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큰 그림 그리기로, 항상 현 지점이 목차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짚어가면서 공부 했어요. 그럼 조각조각이 모자이크처럼 체계적으로 연결되었어요. 다른 하나는, 출력^{output}을 감안하고 입력^{input} 하기입니다. 기억에 남으려면, 무엇보다 스스로 납득이 되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수업하듯이 그림 그리고 설명하면서 공부했어요.

자연과학대학 물리·천문학부 ○○범

2학년 여름방학 끝 무렵, 학교 논술수업에서 겨우 한 문제를 풀었어요. 성취감이 컸는데, 그때 얻은 교훈은 ‘약간만 더 생각하면 된다’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을 조합하거나 연계 하면 풀 수 있었거든요. 저는 『수학의 정석』처럼 쉽게 접할 수 있는 교재들을 가지고 공부했는데, 오래 생각하다 보면 걸리는 것이 있어요. 그럴 때면 원리 하나하나를 꼼꼼히 해결하고 넘어갔어요. 이런 식으로 방학 기간에 책을 보다가 선행대수학을 독학하게 되었는데 공부가 무척 즐겁더라고요. 공부가 재미있을 때 대학진학을 생각하면 좋겠어요.

자연과학대학 지구환경과학부 ○○호

중학교 시절 ‘우물 안 개구리’였어요. 고등학교에 들어가니 위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1학년 때는 정답 맞히기에 급급했어요. 그러다 성적이 오르니 어느 순간부터 원리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어려운 문제만 푼다고 실력이 향상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기본 개념에 충실하려고 했어요. 우직하게 교과서로 개념정리를 했고, 더러 설명이 미흡한 부분은 교사용 지침서로 보충했어요.

공과대학 기계항공공학부 ○○철

수능으로 대학에 진학하려고 했어요. 이른바 ‘정시 파이터’였죠. 암기과목에 취약한 데다 내신등급이 1점대 후반이어서 수시로는 합격하기 어렵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다고 수능 문제풀이에 몰두하진 않았어요. 서울대학교 면접 및 구술고사 기출문항을 보면 대번에 알 수 있듯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예측이 불가능하잖아요. 고등학교 3년간 수학 학원에 다녀본 적은 없지만 나름 심도 있게 수학을 공부했다고 자부해요. 저는 수학 문항을 접하면 이리저리 변형해보는 습관이 있거든요. 오랜 시간 들여다보면서 떠오른 아이디어들을 갈무리하는 식으로 개념에 사고의 유연성을 더했어요.

농업생명과학대학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석

흔히 과제연구하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과학 중점반에서 1~2학기부터 2~2학기까지 과제연구를 3차례 했는데, 한 번은 필수였고 나머지 두 번은 제가 하고 싶어서 했어요. 새로운 연구주제를 찾고 거기에 맞는 연구방법을 고안하는 과정이 즐겁더라고요. 장비가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아 곤란할 때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주어진 여건에서 어떻게 실험할까 궁리하며 참 많이 배웠어요. 기령 중금속 농도 측정기가 없을 때는 관련 자료를 찾아보다가 시료 화학반응을 떠올리거나 선생님의 조언을 받아 옆 학교 분광분석기를 이용하기도 했어요.

면접은 나의 목소리

면접 준비과정과 생생한 후기가 심히
궁금합니다.

면접 대기실과 준비실을 거쳐 교사장에 입실해서,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면 머리가 새하얘진다고 한다. 바로 이 순간을 학생들은 어떻게 극복했을까. “단기속성 사교육은 무용지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머리에 욱여넣은 것은 제 게 아니니까요. 면접은 뭐랄까, 체화된 욱성이예요.”

인문대 노어노문학과 ○○하

1단계 합격자 발표 후에 1주일 정도 면접 대비 학원에 다녔어요. 돌이켜보니, 다른 사람이 간추린 자료를 곁핥기 해봤자 추가질문 하나에 바로 무너지겠더라고요. 결국 실전에서는 명확히 알고 있던 교과 개념과 평소에 깊이 다각적으로 읽었던 내용들만 답변할 수 있었어요. 제시문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그 속에 담긴 의미를 파악하고 이어지는 질문에 즉답하다보니, 온전히 제 것이 된 텍스트만 떠올랐어요.

인문대 철학과 ○○성

내신이 별로여서 1단계 합격을 예상치 못했고, 학교에 「윤리와 사상」 과목이 개설되지 않았던 터라 어떻게 준비할까 난감했어요. 그래서 일단 「윤리와 사상」 교과서를 3일간 정독한 뒤 핵심 개념어를 정리했습니다. 그 후에 기출문제를 살펴보고 면접에 임했는데, 면접장 분위기가 편안해서 그랬는지, 제시문을 읽고 제 평소 소신을 후회 없이 말하고 나왔습니다. 아마도 벼락치기는 안 통할 거예요. 일주일 동안 준비한다고 나아질 성격의 면접은 아닌 것 같아요. 간헐적이지만 꾸준히 미술작품을 접하면서 긴 호흡으로 생각하고, 친구들과 가리지 않고 책을 읽었던 게 도움이 되었어요. 그 덕분에 혼자만의 생각에 갇혀 있지 않을 수 있었거든요.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지

집 주위에 면접 준비 학원이 많이 있지만, 고3 여름방학에 1~2번 가보고 ‘과연 도움이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더는 가지 않았어요. 저는 사회과학보다 수학 면접이 부담되었는데, 애초 ‘수능 공부를 심도 있게 함으로써 면접 준비를 하자’고 제 자신과 합의를 봤습니다. 가령 똑같은 문항을 여러 관점에서 풀이하고 완전히 독파하는 식이었어요. 남이 하는 대로 따라가기보다는 여유를 갖고 즐기면서 의미를 찾고자 했는데, 그 점이 주효했던 것 같습니다.

자연과학대학 통계학과 ○○찬

선행학습이 안된 채로 2~1학기 중간고사를 치르고 나서 크게 낙심한 다음, 처음부터 다시 차근차근 공부했던 것이 전환점이 되었어요. 저는 가급적 더 흥미로운 것을 선택하는 편인데, 물리·화학도 II 수준이 더 재미있어서 수능에서 물리II·화학II를 응시했어요. 수학도 문제를 가지고 놀았던 것 같아요. 친구하고 인도 공과대학 수학 문제를 풀었던 적도 있고요. 실제 면접에서 약 70% 정도만 해결하고 면접장에 들어갔는데 당황하지 않고 더 풀어낼 수 있었던 것도 이런 학습태도와 무관하진 않을 거예요. 아, 수학 학원은 고등학교 3년 동안 6일 다녀 봤어요.

자연과학대학 지구환경과학부 ○○호

면접 준비를 따로 하진 않았어요. 수능 후 시간도 별로 없었고, 기출문항을 살펴보니 어떻게 나올지 가늠도 되지 않아서 단기속성 학원에 다닌들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았어요. 며칠 동안 지구과학 교과서를 차분히 살펴봤어요. 면접 당일, 준비실에 들어가서 제시문을 살펴보니 고등학교 내용만 다 알면 풀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미처 답변을 준비하지 못한 것도 있었는데, 면접하신 교수님께서 긴장하지 않게 힌트를 주시며 답을 유도하셨어요. 사전 답변 준비 수준은 100점 만점에 70~80점 정도였을 거예요.

농업생명과학대학 산림과학부 ○○현

내신이나 수능 성적에 신경 쓰지 않고 공부를 했어요. 나를 위해 공부한다는 생각이 강한 편이었죠. 자연계열 학생들이 대개 등한시하는 지리 과목도 성실히 해서, 시험 전에 종종 강의를 요청받기도 했습니다. 2단계 면접을 앞두고선 학원에 의존하지 않고, 학교 선생님께서 진행하시는 모의면접을 통해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제시문의 난이도가 높지 않아서 다 풀고 면접장에 들어갈 수 있었고요. 비록 면접하면서 실수가 발견되었지만, 교수님이 힌트를 주셔서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농업생명과학대학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석

수학은 사소한 공식이라도 남김없이 증명하면서 공부했고, 과학은 II 수준 4과목을 모두 응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공부했어요. 당장은 중요하지 않고 동떨어져 보여도 언젠가는 다 쓸모 있을 거라 생각 했거든요. 면접은 예상했던 것보다 쉽고 준비시간도 늘어나서 시간이 남았어요. 학원은 면접 직전에 3일 다녔는데 뜻밖에 전혀 도움이 안 됐어요.

대학 - 우리가 무엇을 모르는지 배우는 곳

00회 자연과학대학 물리천문학부 2016학년도 입학

Q 반갑습니다! 고교 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을 들려주세요

A 며칠 동안 실험실에서 밤을 새우면서 고생한 경험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천문학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과 우주 유영에 쓰이는 호흡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장난으로 호흡기를 직접 만들어보자는 말을 하면서 실험을 시작하게 됐어요. 얼떨결에 기획서까지 통과되고 일이 커지자 다른 친구들은 보충수업을 듣고 자율학습을 하고 있는데 나는 화학 약품과 기계들 속에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것이 정말 막막했어요. 한 번은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아 화끈에 호흡기를 만드는 부품으로 음료수를 얼려서 먹었는데 정말 맛있어서 기분을 풀고 다시 실험을 했던 기억도 나요. 당시엔 무척 힘들고 결과도 성공적이지는 못했지만 난관을 헤쳐가는 과정에서 좀 더 성장할 수 있었고 덕분에 소중한 추억까지 얻은 것 같아요.

Q 고교 생활 중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시간 관리 비법을 알려주세요

A 초반엔 의욕이 앞서서 일주일의 공부 계획을 뽁뽁하게 세웠지만 항상 지키지 못해 다시 무리한 계획을 세우고 스트레스를 받는 악순환이 반복됐어요. 기숙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주말에는 평일에 고생한 만큼 보상받겠다는 마음으로 놀다가 다시 기숙사로 돌아오면 후회를 하는 일이 계속되었죠. 그래서 욕심대로 평일은 그대로 하되, 과감하게 주말의 계획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평일에 다 끝내지 못한 목록들을 주말에 여유롭게 끝내고 나머지 시간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쉬었어요. 처음에는 전체적인 공부의 양이 줄어든 것 같아 불안했지만 무리한 계획 때문에 컨디션이 나빠진 상태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효율이 더 높아진 것을 느꼈어요. 또한 계획한 것을 이전에 비해서 더 잘 지킨다는 성취감이 공부에 대한 탄력이 되어준 것 같아요.

Q 우와, 물리학 전공이시네요! 학과 자랑을 부탁드립니다

A 저는 물리천문학부의 물리학 전공을 선택하여 공부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천문학을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들어왔지만 1학년 동안 다양한 과목을 들으면서 좀 더 포괄적인 진로를 고민하기 위해 물리학 전공을 선택했습니다. 이처럼 물리학은 모든 자연과학의 기본이 되는 학문이기 때문에 나중에 진로를 변경하더라도 큰 어려움 없이 적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리학 자체로도 아직 풀리지 않은 난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 길은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물리학에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많은 교과서나 교양서적에서 나오는 물리학의 모습만 보고 물리 학과를 선택한다면 생각보다 괴리가 크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다른 대학에 비해서 다양한 분야의 연구실도 많고 학부생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종종 있기 때문에 물리학을 제대로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에게 서울대학교 물리 천문학부는 딱 맞는 곳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Q 진로 결정 과정 중 고민했던 부분이 있다면요?

A 물리학이 재미있었지만 아무래도 긴 공부를 해야 한다는 점이 크게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나 부모님은 조금 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다른 학과에 가는 것을 추천하시기도 했구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지만 저는 물리학을 공부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어요. 사실 고등학교를 입학할 때만 하더라도 공부에 크게 흥미가 있는 편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가 수업을 통해 물리학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시점부터 목표가 생기고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크게 성장하게 되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저의 태도를 바꾸게 해준 학문 이라면 제 인생을 한 번 걸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편하지 않은 길일 수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Q 대학에서의 공부는 어떤가요? 미래의 서울대생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고등학교 때는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운다면 대학에선 무엇을 모르는지에 대해서 배운다는 점이 가장 다른 것 같아요. 문제에 따라 답이 없을 수도 있고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지는 경우도 많아요. 학과 특성상 물리학에 정말 깊이 빠져 있고 관심이 큰 만큼 전공을 자발적으로 미리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런 차이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시험을 위한 공부만 한다면 좋지 않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길게 본다면 정해진 답보다는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통찰하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는 독서를 많이 해보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같은 내용이라도 책마다 서술하는 관점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독서를 통해 지식을 더 깊고 색다른 시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기르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대를 머릿속에서 지워라

00호 자연과학대학 지구환경과학부 2016학년도 입학

Q 안녕하세요! 고교 시절 어떤 학생이셨나요?

A 하하. 고교시절을 생각해보면 아마 다른 친구들의 기억 속에 “아... 그... 책상에만 붙어있던 친구?” 가 제일 것 같아요.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딱히 특색있던 사람은 아니었지요

Q 대학에 입학하면 어떤 것이 가장 하고 싶었나요? 현재 대학에서 듣고 있는 수업에 관해 말씀해주세요

A 고등학교 때 책을 읽어보면서 서로 동떨어진 것 같은 분야들이 사실 모두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절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대학에 간다면 시간이나 성적 같은 것들을 신경 쓰지 않고 역사, 철학, 종교, 과학, 문학 등 여러 분야를 공부해보고 싶었어요. 마침 제가 있는 학부는 전공필수과목이 없어서 비교적 제약을 받지 않고 다양한 수업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수강한 다른 분야의 수업은 오히려 제게 ‘과학’이란 학문은 무엇이고 그 기저에는 어떤 생각이 깔려있는지, 그 안에서 ‘지구과학’은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인지 한층 더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이 된 것 같아요. 1학년 때는 물리학, 지구과학, 미적분학, 서양철학, 한국전쟁, 그리스로마신화, 합창수업, 글쓰기 등을 들었고 현재는 물리학 쪽을 더 공부하고 싶어서 뉴턴역학, 화학, 현대시, 선형대수학, 항성계 수업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Q 지구과학이란 분야에 흥미를 느끼게 된 계기가 있으셨나요? 진로 결정 과정이 궁금해요

A 중1 때 첫 과학수업으로 배운 암석들을 통해 과학에 흥미를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중에서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상현상, 돌, 땅, 바다 같은 것들이 특히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지구과학을 제 진로로 삼아야겠다고 결정한 시기는 중3 때였어요. 종교와 과학에 대한 근원적 답을 얻기 위해서는 과학을 제대로 배워봐야 할 것 같아서 과학자를 해야겠다고 결심했지요. 제가 가장 흥미를 느끼는 분야이자 너무 궁금한 게 많은 학문이었기에, 또 그즈음에 본 영화 ‘투모로우’가 매우 멋있어서 영향을 받은 것도 있어요. 하하

Q 지구환경과학부는 지구와 관련된 모든 걸 공부하나요? 학과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지구환경과학부에서는 지구의 하늘, 땅, 바다가 어떻게 움직이고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 지를 배우는 학과입니다. 고등학교 지구과학을 생각하신다면 좀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하늘, 땅, 바다 또한 모두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대상이기 때문에 모든 내용이 물리학, 화학, 생물학 등을 기초로 해요. 그래서 어쩌면 “법칙들이 지구라는 대상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새로운 현상을 일으키는지”를 배우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칫하면 우리 학부 수업보다 물리학, 화학, 생물학 등의 수업을 더 많이 들어야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이런 분야적인 특성으로 인해 지구환경과학부에는 전공필수과목이 없고, 오히려 우리 학부에만 있는 것보다는 타과에 가서 여러 분야의 수업을 듣고 오길 장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여러 학문을 기반으로 연구하기 때문에 대기물리부터 고생물학까지 그만큼 많은 세부분야가 존재하기도 해요. 지구에 관심이 있고 과학 과목 전반에 흥미가 있으시다면 지구환경과학부 진학을 추천합니다!

Q 학과 선택 때문에 고민인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A 대학에서 공부하는 양은 정말 어마어마해요. 고등학교 때와는 달리 그 난이도도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워요. 고교 때는 단순한 암기 & 숙달만 하면 되었지만, 대학교에선 각 분야를 앞서 고민한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의 흐름’을 배우고 그들의 시선에서 함께 고민해야 해요. 또한 배운 그대로 뱉어내기만 하면 되는 고등학교와는 달리, ‘가르쳐주지 않은 것’을 공부하고 스스로 고민해서 ‘전혀 다른 것’을 뱉어내야 합니다. 이런 곳에서 여러분이 그 분야에 대한 흥미, 열망이 없다면 정말 버텨내기 힘들 거예요. 반대로 흥미와 열망이 있다면, 대학에서 많은 것을 고민하고 배워나가며 그 경험이 여러분에게 매우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여러분이 공부하고 싶은 분야의 학과를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선택을 할 때 ‘이미지’에 휘둘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미지만 생각하며 막상 경험해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과 다른 것이 많거든요. 스스로 가고 싶어서 갔지만 공부하는 내용도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 스스로 잘 생각해보고 그 과가 실제로 어떤 것을 배우는 지도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수단을 통해 제대로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Q 서울대를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격려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제가 고등학교 때, 특히 고3이 될수록 제 은사님께서는 항상 제게 “서울대를 머릿속에서 지워라”라고 말씀 하셨어요.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보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여러분, 꼭 서울대 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학교 벽에 쓰여있는 말 중 “대학은 스스로를 가르치는 사람을 양성하는 곳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대학은 터만을 제공하고 우리는 배움을 ‘직접 찾아야’ 한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절대로 대학은 무언가를 시키지 않아요. 하고 싶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하기 싫다면 정말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대학이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4년의 시간 동안 그 공간 안에서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얻은 ‘경험’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이지 서울대를 온다고 성장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시기가 시기인 만큼 우리가 입시라는 것에 주력해야 하지만, 동시에 더 먼 미래를 위한 열망은 식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맞이할 대학 4년은, 입시결과 또한 영향을 미치겠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열정이 훨씬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 입시결과에 대해 너무 부담가지시거나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시가 아닌, 나 자신에게 집중하라

00덕 공과대학 기계항공공학부 2016학년도 입학

Q 반갑습니다. 후배들에게 지치지 않고 공부하는 비법을 알려주세요

A 저는 공부하면서 휴식을 정말 중요히 여겼어요. 제가 그냥 쉬고 싶어서 합리화한 것일 수도 있지만, 쉴 때 잘 쉬어야 장기전에서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자습 시간과 쉬는 시간을 철저히 구분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가끔 다 하기 싫을 때는 날 잡고 질릴 때까지 놀면서 공부하고 싶은 의욕을 되찾곤 했고, 정말 가끔 의욕에 불탈 때는 하루 종일 숨만 쉬고 공부한 적도 있어요.

Q 원래 성격은 조용했다고 들었어요. 어떤 경험을 계기로 성격이 바뀌셨나요?

A 저는 원래 말이 별로 없고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남들 앞에서 말하는 일은 당연히 더 못했죠. 그런데 고교시절 학생회에서 부회장을 맡으면서 제가 많이 변하게 되었어요. 부회장이 된 후 학교 행사마다 사회를 봐야 했거든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되게 못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남 앞에 서는 일이 능숙해졌어요.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저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주면서 제가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된 거죠.

Q 대입을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고교 3년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해요

A 저는 입시라는 단어가 너무 싫었어요. 친구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수시는 전형이 뭐 그렇게 많은지, 스펙을 만들라고 하는데 대체 뭐가 필요하다는 건지, 너무 어려운데 제가 준비해야 할 것은 많대요. 듣다보니 대학가는 것 보다 스트레스로 앓아눕는 게 더 빠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내가 대학에 붙고 떨어지는 문제로 3년을 힘들어 하는 건 좀 웃겼어요. 공부는 그냥 내가 더 배우고 성장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왜 대학교에 잘 보이는 것까지 설계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학 잘 붙는 방법은 모르겠으니, 대학은 잊고 나를 조각하는 데에만 집중하기로 했어요. 공부를 하는 이유는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해서이고, 대학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열매라고 생각했죠. 그러다 보니 순수하게 무언가를 배울 때 행복하고, 학교 생활도 재미있었어요. ‘입시’라는 것에 집중하지 않았지만, 나 스스로를 위해 공부하며 3년을 보내니 나름 입시를 잘 준비해온 학생이 되어있었을 때는 조금 뿌듯했습니다.

Q 서울대를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요?

A 전 항상 주변을 보면서 주로 어떤 학생이 서울대에 합격하는 걸까 관찰해요. 비슷한 다른 대학교의 학생들도 마찬가지로겠지만, 제 주변 서울대생들의 특징은 다들 맛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성도 올바르고, 인생도 재미있게 살아요. 꿈을 위해 묵묵히 노력하는 사람도 있고, 다들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서울대에 다니고 있는 것은 큰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항상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글을 읽고 있는 학생 여러분들도 분명 모두 맛있는 사람들이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 거예요.

한라산에서의 다짐이 서울대로 이끌다

00우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2016학년도 입학

Q 고교 생활 중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다면?

A 수학여행을 가면서 제게는 2가지 선택권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버스를 타고 편히 관광하는 것, 다른 하나는 반나절 동안 한라산을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리학과에서는 1년에 2번 답사를 간다던 정보가 떠올랐습니다. 다른 친구들에게는 그저 힘든 등산일 수 있지만, 저에게는 한라산 등반이 지리학과 진학에 대한 다짐의 계기가 된 것이죠. 끝없는 오르막길을 쉬지 않고 오르며 허벅지가 터질 것 같고 숨이 넘어갈 것 같았지만, 한 걸음씩 힘들게 오른 정상에서 올라온 길을 내려다보니 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한 것 같아 스스로가 대견했습니다. 최종 목표인 정상에 올라 책에서만 봐왔던 백록담 화구호를 보면서, 한라산의 수직적 생태 분포를 직접 경험함과 동시에 꼭 지리학과에 진학해서 이 백록담에 다시 오리라 다짐하고 있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Q 백록담에서의 다짐이 결국 서울대 지리학과까지 이어진 거군요?

A 한라산 등산경험은 정말 고교시절 내내 제게 좋은 영향을 미쳤어요. 한라산에서의 경험과 다짐을 떠올리며 제 성적도 차근차근 올랐고, 힘들 때마다 그때의 경험을 떠올리며 마음을 잡을 수 있었거든요. 맞아! 다짐이 정말 이루어진 것처럼 얼마 전 지리학과 정기 답사로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둘째 날 일정은 한라산 등반이었고 물론 백록담까지 보고 왔죠. 제가 서울대학교 지리학과에 진학하고자 결심했던 장소에 서울대 사람들과 같이 가게 되니 정말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Q 고등학교 3년간 어떻게 시간 관리를 했었나요?
후배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공부 노하우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A 잠, 운동, 게임. 흔히 공부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이라 여겨지지만, 전 고등학교 3년 동안 딱히 이 3가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철저한 시간 관리를 통해 누릴 수 있을 만큼 누렸지요. 하지만 처음부터 잘할 순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 일찍 자는 습관이 있었던 저는, 고교생이 된 후 공부에 대한 부담감에 밤 12시까지 공부를 하다 많은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자는 시간이 줄어들자 일어나는 매일 아침은 고통의 연속이었고, 수업시간에도 제대로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점점 일상이 즐겁지 않았고 그러면서 성적은 하락했죠.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은 '무리해서 잠을 줄이지 말자. 그 대신에 학교에서는 절대 잠을 자지 않고 그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하자'였어요.

Q 그럼 고교 생활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주시겠어요?
잠이 많은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A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는 10시까지 야간 자율학습이 필수였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최대한 일찍 씻고 바로 잤지요. 무리하지 않고 적정 수면 시간을 채우자, 매일 아침과 학교생활이 즐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수업시간에 즐거나 선생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일도 사라졌습니다. 잠을 포기하는 것보다 충분한 수면을 통해 스스로의 페이스를 찾으니 집중력이 높아지고 야자시간까지 힘들지 않게 공부할 수 있었어요. 또 집이 가까워서 5분만 걸으면 집에 도착할 수 있었고, 공부 강요 없이 제가 한 선택을 최대한 존중해주는 부모님도 계셨으니 이것 또한 수험생인 저에게겐 행운이었습니다.

후배님들, 저는 잠이 많은 사람인데요, 공부에 대한 압박감으로 무리하며 공부했더니 바로 탈이 났어요. 고교생에게는 1분 1초가 아까운 시간이지만, 본인의 컨디션, 체력, 신체리듬을 제대로 파악하며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부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Q 서울대를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격려의 한마디

A 항상 자신감을 가지세요. 그리고 즐겁게 사세요. 즐겁지 않다면 소소한 것에서 행복을 찾아보세요.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수험생 생활이 힘든 것도 알고, 하루하루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도 항상 내 편이 되어주시는 부모님, 가족, 같이 열심히 하루하루 견디고 있는 친구들, 수험생 못지않게 학생들에게 신경 써주시는 선생님들도 있잖아요. 멀리 잡아놓은 목표가 너무 어려워 보이고 힘들다면 하루하루 목표를 잡고 천천히 차근차근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힘내세요.

항상 미래를 생각하세요

00협 자유전공학부 2016학년도 입학

Q 반갑습니다! 제주에서 오셨네요!

A 네, 저는 제주도에서 태어나, 19년간 제주에서 자란 제주 토박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듯, 깨끗하고 살기 좋은 곳이지요.

Q 제주에서 보낸 학창 시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A 저는 중학교 때까지, 그저 공부 열심히 하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아이였습니다. 이는 고교 입학 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나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는 제 청소년기의 가장 큰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쓰게 되었고, 학교 성적이 크게 떨어진 거예요. 특출나게 공부를 잘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나름 열심히 하는 편이었고,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의 기대를 받고 자라 저는 성적에 누구보다 민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자신 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도 떨어진 성적에 화가 많이 나셨고, 그때 부모님과 큰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 제가 크게 성장하게 되었죠!

Q 스마트폰으로 시작된 고교 시절의 위기,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A 성적이 떨어지고 부모님과 갈등이 생기자,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아무 생각 없이 항상 희망 진로란에 법조인을 적던 제 생각이 났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가야 하니까'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학원을 가던 저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누구보다 공부를 잘하려고, 점수 1점, 아니, 0.5점에 목을 매던 저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집을 나왔습니다. 이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그 순간의 저는 부모님께 큰 불효자였습니다.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집을 나와 무작정 시외버스를 타고 이곳저곳에 다니며, 저의 과거와 현재를 끊임없이 성찰하였습니다. '나는 누구이며,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인가' 라는 본질적인 질문에 끊임없이 답을 내리고자 노력했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간을 통해 저는 제가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사람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문화예술 경영인이 되고 싶다는 나름의 답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처음으로 진지한 저의 모습에 부모님 또한 경청해 주셨고, 그 후 저는 스스로 '공부'의 동기를 찾았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되고 싶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 시기를 전환점으로, 저는 저의 의지를 내약하게 만든 스마트폰을 스스로 처분했고, 점심시간, 저녁시간에 친구들과 함께하는 농구도 때때로 포기하며 독하게 공부해 나갔습니다. 이후에는 '나의 목표에 도달하는 것은 나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학창시절을 보낸 것 같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것은 부질없음을 느끼기도 했고, 남과 비교한 내가 어땠든 간에 나는 내 모습 그대로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결국 저는 스스로에게 더 집중한 결과, 제가 그리던 꿈인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Q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예비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면요?

A 저는 여러분이 미래를 내다보며, 자기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을 하는, 그러면서 현재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항상 사람은 '미래'라는 불확실함과 싸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느 대학에 갈지, 당장 있을 시험에서 몇 점을 받을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이 생각보다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노력한 것에 비해 잘 못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좀 더 확대해서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될지 또한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항상 미래를 생각하세요. 불확실한 미래와 맞서 싸우세요. 어떤 꿈이든 좋습니다. 꿈을 꾸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생각하세요. 남과 비교하고, 자존감을 떨어뜨릴 시간에, 여러분 자신에 집중하고 꿈과 목표를 정하고 올곧게 그 길을 묵묵히 걸어보세요. 어쩌면 이게 당장의 공부만큼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곧 여러분 당장의 과업 중 하나인 학업 그리고 여러 활동을 하는 데 엄청난 동력이 될 것이며 주요한 에너지원이 될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은 어느새,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 멋진 사람이 되어있을 것이고, 생각했던 목표에, 혹은 그보다도 더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을 겁니다. 힘내세요 여러분, 나중에 후배로 뵈겠습니다. 꼭 밥 사 달라고 연락주세요.

서울대학교는 학교 안에서 성장해온 학생들을 기다립니다

서울대학교는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학생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간혹 특정 재능과 경력이 있어야만 합격할 수 있다고 오해하거나, 재학생 수가 적은 학교의 학생은 내신 성적 등급 점수가 높게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서울대학교에 지원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서울대학교의 학생부종합평가 방식은 학교 안에서 돋보이는 성취를 보이고 적극적으로 노력한 학생이라면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학교 안에서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하기 바랍니다.

대학 진학을 위해 보여주기식의 활동이 아니라 학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부, 인성을 길러주는 모둠 활동을 경험하기 바랍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학교 교육 안에서 깊이 있는 지적 훈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의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깊이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십시오. 지식 전달 위주의 수업보다 학생들이 교실 안에서 재능과 적성을 발휘할 수 있는 수업과 과제를 충분히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학내 활동 안에서 인성을 쌓아갈 수 있도록 학업 외 활동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는 학생과 선생님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서울대학교의 전형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고등학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협력하여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성장하도록 돕고자 합니다.



입학본부 웹진 「아로리」 사용 설명서

<http://snuarori.snu.ac.kr>

입학본부 웹진 아로리는 서울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과 관련된 정보를 폭넓고 다양하게 전달하여 서울대학교 입학에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제작한 웹진입니다. 웹진에 담긴 다양한 내용들은 입학전형 내용의 안과 밖을 보여드리고 있으며, '아로리'란 말의 뜻이 '친구, 지인'이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처럼 누구나 친근하고 손쉽게 웹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로리는 4개의 섹션 아래 각 3~4개 메뉴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메뉴들이 최초 화면에 모두 노출되어 있어서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각 섹션과 메뉴에 담겨 있는 세부 내용들입니다.

서울대 소개	관악로 1번지	서울대학교 소개, 서울대학교가 추구하는 가치, 서울대학교의 인재상을 엿볼 수 있는 동영상 4편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전공 스케치	서울대학교의 단과대학과 소속 학과의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메뉴입니다. 학과 구성원들을 직접 인터뷰한 내용이 바탕이 되므로 생생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억의 서울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활약 중인 동문들의 이야기를 인터뷰 기사로 담아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입학안내	전형안내	재학생들이 말하는 고등학교 생활을 담은 학생부종합전형 안내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으며 모집안내와 학생부종합전형 안내 책자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입학본부 24/7	입학본부의 1년 살이가 월별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파릇파릇 서울대	서울대학교 신입생의 인터뷰 내용으로 고등학교 생활담과 현재 대학 생활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자료창고	서울대학교 수시모집 일반전형 면접 및 구술고사 기출 자료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학생생활	서울대 사용법	예비 서울대 학생이라면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교통, 기숙사, 장학금, 도서관 이용법, 식당, 학생증 등 대학 생활에 꼭 필요한 아이템 사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대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도 간접적으로 대학생활을 미리 체험하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전공 돋보기	서울대학교 전공소개 동영상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모집단위 선택의 길잡이가 되어 전공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면접 우수자의 면접 준비와 실제 사례가 생생하게 소개되어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방과 후 학교?	서울대학교 동아리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동아리연합회에 소속된 동아리는 물론 학과 동아리, 단과대학 동아리 등의 이야기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	나도 입학사정관	서울대학교 합격생의 서류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3개 모집단위 3명의 합격자 서류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교육 이렇게	교실 수업 개선 사례를 비롯한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계신 선생님들의 이야기가 실려 있으며 학교 현장에 도움이 될 만한 소재인 '학교교육과정 및 교실 수업 개선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 고등학교의 교육 활동들을 담은 메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슈이슈!	우리 교육계의 쟁점 사안에 대해 교육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입니다.
	입학본부에게	입학본부에게 건의하고 싶은 내용을 교류하는 공간입니다. 서울대학교 입학전형에 대해 좋은 의견을 주실 분들은 snuarori@snu.ac.kr 로 전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로리는 PC화면과 동일한 모바일 화면을 제공하고 있어,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웹사이트입니다.



SEOUL
NATIONAL
UNIVERSITY